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젊은이들 -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성전 축복들, 10쪽

성전 결혼 그 이상, 16쪽

내 인생을 위한 계획, 친4쪽



회 복의 과정에서 성전 사업은 매우 높은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준 첫번째 계시는 이 교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제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는 말라기 제4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모로나이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들에게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젊은이들과 성전”, 10쪽.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스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엠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고틀,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버만 폴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톤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제닌 토마스, 플 벤덴버그, 줄리 워델, 킴벌리 웰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편집 인턴 사원: 브리트니 존스 빔, 니콜 시우어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엘 겸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캔디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허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79호, 제 483권, 제 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장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06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시련 속에서 연단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10 젊은이들과 성전 **러셀 엠 넬슨 장로**
- 20 결혼에 대한 자신감 **멜리사 하월**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움
- 30 복음의 충만함: 출생 이전의 생
- 39 구약의 교훈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 **퀸틴 엘 쿡 장로**
- 42 교회 잡지를 통해 가르침 **돈 엘 셀**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어느 샌드위치 가게로 인도되어
크리스 엘 쿠퍼
나는 주일학교를 선택했다
헬렌 워커 존스
당신의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리우 쿠안 팡**
- 48 애독자 편지



2 시련 속에서 연단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밤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젊은이들과 성전**”, 10쪽: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이 기사를 활용하여 성전의 역사, 목적, 축복에 대해 살펴본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성전 참석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하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함**”, 16쪽: 여러분의 집안이나 주변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둔다. 가족들이 따를 수 있으며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해 줄 상세한 지침들을 적는다. 영원한 진로를 정하는 것과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노력에 관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조언과 이 활동을 비교한다.

“**두 번 구조됨**”, 32쪽: 더블류 볼프 카 장로의 부친이 신체적 및 영적 위험에서 그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소리내어 읽는다. 가족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구출되었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그 이야기들을 속죄와 구주께서 신체적 및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야곱에게 가지고 온 요셉의 옷, 렘브란트 반 린(1606~1669)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 자기 옷을 찢고”(창세기 37:31~34)

청소년

- 8 혼자서 걸었던 리카르도 폴 벤덴버그
- 16 하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6 세미나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재닛 토마스
- 32 두 번 구조됨 더블류 롤프 카 장로
- 35 포스터: 생명의 물
- 36 질의 응답: 제 친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껴요. 친구가 교회에서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친12 행복을 주는 책

26 세미나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요 린다 매글비
- 친6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뉴시와 기도
- 친8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패트 그레이엄
- 친10 특별한 증인: 누구일까요?
- 친11 심심풀이: 경전 인물
- 친1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행복을 주는 책 로라 린디
- 친14 내 친구 린다 하이디 르누프 브리스코

표지

앞: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모델이 포즈를 취함. 뒤: 천사 모로나이, 아바드 티 페어뱅크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제공.

친구들 표지

삽화: 베스 엠 휘태커.

방법과 관련지어 본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

39쪽: 기사의 앞 부분을 활용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보고, 세상의 상황에 관한 스테이크 회장의 우려에 관해 토론한다. 가족들이 시련에 직면하여 그들의 결심이 시험당하는 것을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 역할극으로 해 본다. 가족들이 이런 상황과 장래에 겪게 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계획하도록 돕는다.

“등대”, 친2쪽: 등대의 사진을 보여 주고 등대가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기사의 각 단락을 소리내어 읽는다. 각 단락을 읽은 후, 주님의 등대에 가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상호부조회, 25쪽
가르침, 1, 42쪽	선교 사업, 32쪽
가정 복음 교육, 7쪽	성약, 10, 16쪽
가정의 밤, 1쪽	성전 및 성전 사업, 10, 16쪽
가족 역사, 10쪽	세미나리, 26쪽
개혁자, 2쪽	신앙, 2, 25, 친2쪽
견뎌, 2쪽	신체 장애, 친14쪽
결혼, 16, 20쪽	안식일, 32, 44쪽
경전 공부, 친11쪽	역경, 2, 44쪽
고결성, 39쪽	영감, 44쪽
교회 참석, 8, 36쪽	예수 그리스도, 2, 25, 35, 친2, 친4쪽
계약전서, 39쪽	용기, 20, 39쪽
구원의 계획, 30, 친4, 친8쪽	우정 증진, 36쪽
기도, 친6쪽	우정, 36, 친14쪽
기쁨, 26, 친12쪽	전세, 30쪽
모범, 8쪽	젊은이들, 10쪽
방문 교육, 25쪽	주일학교, 42, 44쪽
병 고침, 44쪽	초등학교, 친4쪽
보호, 32, 친2쪽	
사도, 친10쪽	



시련 속에서 연단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련과 슬픔, 찢린 상처와 가시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역경의 쓰라림에 잠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과 힘,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 년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은 마틴 손수레 부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경험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민을 왔으며 너무 가난해서 황소나 말, 그리고 마차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손수레에 모든 세간을 싣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끌고 평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용감한 이주가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업을 이끌고 있던 한 교사가 그런 시도 내지는 그들이 [마틴 손수레 부대] 그런 조건 아래서 평원을 건너도록 허락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맥케이 회장님은 그 밤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손수레 부대 행렬이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것 이외의 어떤 물자나 보호도 없이 개종자 무리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평원을 건너도록 한 것에 대해 교회 및 그 지도자들에게 모진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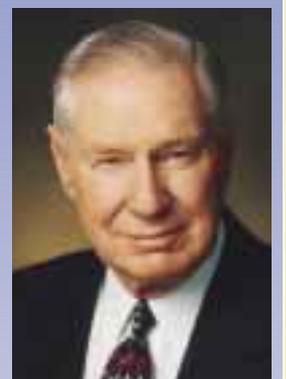
“구석에서 한 노인이 ...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그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도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에 복받쳐 창백했으나 그는 침착하고 신중하면서도 매우 진지하고 진실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중지해 줄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은 여기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늦은 철에 손수레 부대를 보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수레 부대에 있었으며 아내도 거기에 있었고, 여러분이 언급한 벨리 언생크 자매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노출되거나 굶주려 죽었지만, 그 부대의 생존자가 단 한 마디라도 비판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저는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병으로 인해 지치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 한 발자국조차 거의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저 앞을 바라보니 모래 더미 혹은 경사진 언덕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짐을 끌고 그곳을 지날 수 없으니 저기까지만 가서 그곳에서 포기해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래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신성한 목자의
어렵듯하고 거룩한 속삭임에
더욱 귀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더미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 수레를 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러 차례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수레로 여행한 것을 제가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그 후 제 인생 어느 때에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특권이었으며, 제가 마틴 손수레 부대와 함께 여행하게 된 특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¹

연단의 불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뇌와 용감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연단자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불순물처럼 녹아 없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밝고 온전하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혼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일부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신성한 목자의 어렵פות하고 거룩한 속삭임에 더욱 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삶에는 역경과 고된 삶이 주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충실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고뇌와 슬픔, 때로는 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²

찌르는 육체의 가시는 의미와 희망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삶에 종종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변화는 종종 잔인하고 힘들어 보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찾아옵니다. 영혼은 이런 식으로 신앙과 유용성, 아름다움, 힘이 있는 삶을 만드는 일에서 주님의 손 안에 놓인 부드러운 진흙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단자의 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상실을 초래하지만, 영원한 안목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연단이 완전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앨마는 “목자가 너희를 불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엔 귀 기울이려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³ 극단적인 시련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고, 마음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중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지 않으며, 그 대신에 힘을 새롭게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는 이사야의 약속을 누립니다.⁴

증거를 얻기 전에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라.”라고 간증했습니다.⁵ 신앙에 대한 이러한 시험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⁶ 시련과 역경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비적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됨

영적인 역경 속에서의 재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체가 되도록 합니다. 모사이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거듭나야,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변화되고 구속되고 고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⁷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1897~1988)은 이런 놀라운 권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의 삶에 미치는 효과는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불타는 영에 의해 밝게 빛나는 사람은 죄와 짙은 어둠의 이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의를 전진시키고 인간의 삶과 마음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활동적인 대리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움직입니다.”⁸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렛 장로님(1807~1857)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즉 산을 파내려 가고, 지구의 끝까지 가거나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마지막 적을 정복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진리가 승리해 다스릴 때까지 결코



이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들이 더욱 더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껏 겪었던 것보다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동정심과 위로의 위대한 근원이십니다.”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⁹

불행하게도 우리의 가장 큰 환란 중 일부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의 결과이며, 우리 자신의 부주의 또는 범법 때문에 일어납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필요하다면 충분하고도 완전한 회개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통해 많은 것들이 완전히 올바르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1855~1931)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통과 재난의 날에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 그들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그들의 동정심과 애도를 풍성하게 전해 줍니다. 그들이 직접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더욱 더 그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껏 겪었던 것보다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동정심과 위로의 위대한 근원이십니다.”¹⁰

이사야는 구주의 탄생 이전에 그가 “간고를 많이 겪은” 분이라고 일컬었습니다.¹¹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자신에 관해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스 털먼 폰드
가족은
윈터쿼터스에
도착했으며, 다른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천막에서 사는 동안 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윈터쿼터스까지 평원을
지나오면서 다섯 자녀가
죽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임, 해리, 윌리엄스

너 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고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¹²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형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이 더블류 독시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후일의 모든 심판, 즉 질병, 전염병, 전쟁 등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이런 역경들이 범범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원리이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9쪽)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우리에게 오는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자비 또는 노여움, 둘 중의 하나에 기인한다고 믿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가르쳤습니다.”¹³

바울은 이 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구주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¹⁴

인내의 연대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고난은 극심합니다. 교회 초기 시절에 스틸먼 폰드 형제는 나부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개종자로서 매사추세츠 주 허바드스톤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내 마리아 및 자녀들과 함께 나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1846년 9월, 그들은 서부 대이주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해 초겨울에 말라리아, 콜레라, 폐결핵을 포함하여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에게 이 세 가지 질병 모두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폐결핵에 걸렸으며, 자녀들 모두가 말라리아를 앓았습니다. 이른 눈 속에서 이동을 하는 동안 세 자녀가 죽었습니다. 스틸먼 형제는 그들을 평원에 묻었습니다. 마리아의 상태는 비통과 고통, 그리고 말라리아 열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을 앓던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조셉과 하이럼이라고 지었으나, 두 아기 모두 며칠만에 죽었습니다.

스틸먼 폰드 가족은 윈터퀴터스에 도착했으며, 다른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천막에서 사는 동안 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윈터퀴터스까지 평원을 지나오면서 다섯 자녀가 죽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레이스 케이 휘트니와 헬렌 마 휘트니의 일지는 스틸먼 폰드 형제의 네 자녀가 더 죽은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줍니다.

“1846년 12월 2일 수요일에 열네 살 된 로라 제인 폰드가 ... 오한과 열로 죽었다.” 이틀 뒤인 “1846년 12월 4일 금요일에 열한 살 된 해리엇 엠 폰드가 ... 오한으로 죽었다.” 사흘 뒤인 “1846년 12월 7일 월요일에 열여덟 살 된 애비게일 에이 폰드가 ... 오한으로 죽었다.” 5주 뒤인 “1847년 1월 15일 금요일에 여섯 살 된 라이만 폰드가 ... 오한과 열로 죽었다.”¹⁵

네 달 뒤인 1847년 5월 17일에 아내인 마리아 데이비스 폰드 자매 또한 죽었습니다. 스틸먼 폰드 형제는 평원을 지나면서 아홉 자녀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유타에서 뛰어난 정착촌 건설자가 되었으며, 훗날 칠십인 정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원을 건너면서 아홉 자녀와 아내를 잃은 스틸먼 폰드 형제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과 그 이후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성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힘, 그리고 구원이 담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밤이 없다면 우리는 낮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별들과 하늘의 광대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쓴 것 속에서 단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역경 속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준비시키고 정화시키고 정제하며, 그리하여 축복을 줍니다.

장미를 자를 때 우리는 종종 같은 줄기에서 나온 가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단자의 불로 인해 영광스러운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영원한 재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대가는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신성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내적 자원이 다시 일깨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로움이라는 편안한 외투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헤아릴 때 자기 연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듯이, 연단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영원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¹⁶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성한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감미로운 영생의 말씀입니다. ■

주

1. "Pioneer Women", *Relief Society Magazine*, 1948년 1월호, 8쪽.
2. 고린도후서 12:7.
3. 엘마서 5:37.
4. 이사야 40:31.
5. 이터서 12:6.
6. 베드로전서 1:7.
7. 모사이야서 27:24~27 참조.
8. Conference Report, 1941년 10월, 89쪽.
9. *Deseret News*, 1853년 4월 30일, 2쪽.
10. "A Lesson from the Book of Job", *Improvement Era*, 1918년 11월호, 7쪽.
11. 이사야 53:3.
12. 교리와 성약 19:18.
13. *The Doctrine and Covenants Speaks*(1970), 2:373; 또한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52~53쪽 참조.
14. 히브리서 5:8~9.
15. "Stillman Pond, a Biographical Sketch", comp. Leon Y. and H. Ray Pond, in Sterling Forsyth, *Histories*에서 인용,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4쪽.
16. 교리와 성약 53:7.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금반지 또는 반지 사진을 보여 준다. 처음에 어떻게 금에 불순물이 들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가열을 통해 금에서 불순물을 어떻게 분리하여 금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때 일어나는 일을 이 과정과 비교해 보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친 말씀에 대해 간증한다.

2. 가족에게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를 말해 보게 한다. 메시지에서 개척자의 이야기를 읽어 준다. 이들 개척자들이 어떻게 시련에 의해 연단되는 것의 모범이 되었는지를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개척자들처럼 그들이 어려울 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구주야말로 최상의 조연자가 되신다고 간증한다.

3. 메시지에서 “인내의 연대기” 부분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시련을 통해 오는 축복을 목록으로 만든다. 가족들에게 그들이 시련을 통해 받았던 축복들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혼자서

리카르도

리카르도는 매주 혼자서 교회로 걸어갔다. 그때부터 그의 모범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폴 벤덴버그
교회 잡지

일 요일, 성찬식에 가야 할 시간이지만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페루 트루히요 프리마베라 스테이크 로스 하르디네스 와드의 리카르도 나바스 루이즈라면,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혼자서라도 교회로 걸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 감독님을 도와 모임 준비를 할 것이다.

“이곳 트루히요에서 집사가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신권을 지니는 것은 제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와드에 세 명밖에 없는 집사들 중 하나인 리카르도는 삼 년 동안이나 매주 혼자 교회에 충실하게 걸어다녔다. 리카르도가 두 살 때는 가족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었으나, 일곱 살이 될 때에는 아무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로 가고자 하는 리카르도의 소망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저는 침례 받기 위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영을 느끼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의



리카르도 나바스 루이즈와 그의 할머니 마벨라는 가장 친한 친구이다. 리카르도의 모범으로 인해 이제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로 함께 걸어간다.

가장 큰 소망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꾸준히 교회에 오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리카르도는 여러 면에서 선교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 아이는 항상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내게 모범이 되었습니다.”라고 리카르도의 할머니인 마벨라 루이스 카르테나스 자매는 말한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가족을 방문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그 동안 내내 리카르도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앉아서 토론을 듣고, 매주 일요일마다 충실하게 교회에 참석하고, 할머니께 찬송가를 가르쳐 드리기가까지 했다.

여덟 살이 되고 혼자 교회에 참석할 때, 그는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또한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10살 때, 할머니와 같은 날에 침례를 받았다.

“할머니는 마치 엄마 같아요.”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 주셨어요.” 리카르도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네 명과 함께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저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도록 도와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리카르도는 말한다. 리카르도는 모범으로 그의 가족을 가르치려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다. “교회에 갈 때 모범이 되려 노력합니다. 제가 옳은 길로 갈 때 제 가족들이

걸어다니는 리cardo

저를 보고 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리cardo와 할머니만 활동 회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가정의 밤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매주 월요일마다 앞에 나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 리cardo의 몫이다. “저는 가정의 밤 공과를 위해 물몬경과 성경을 사용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때로는 집사를 위한 공과 교재도 사용합니다.”

리cardo는 또한 그의 친구들과 이웃에게도 간증을 전한다. “우리 이웃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와 선지자, 그리고 니파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앙에 관해, 그리고 기도가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친구들은 남아서 듣지만, 가 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cardo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는다.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그는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할머니와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누가 아는가? 때가 되면 리cardo는 아마도 또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



사진: 폴 벤턴바그, 지도: 토마스 에스 카민드

젊은이들과 성전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 주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교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영광의 높이를 탐구하고, 그 영원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는 항상 그의 백성에게 성전, 곧 합당한 성도가 그 자신과 죽은 자를 위하여 복음의 성스러운 의례와 의식들을 수행하는 거룩한 건물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Bible Dictionary, “Temple”, 781쪽) 구약전서에는 의식, 성약, 더 나아가 성전 의상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합니다.(예를 들어, 출애굽기 28~29, 레위기 8장 참조)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거룩한 집을 받아들이셨습니다.(역대하 7:12 참조) 이 성전은 기원전 600년에 그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백 년 후, 스킴바벨이 이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기원전 37년에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가 그 뒤 헤롯이 성전 산의 부지를 평평하게 하여 성전의 제2차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Bible Dictionary, “Temple”, “Temple of Herod”, 781쪽 참조)

이것이 예수께서 알고 계셨던 성전입니다. 어머니가 그분을 찾을 수 없어 걱정하던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누가복음 2:43~49 참조)

예수께서는 첫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 곳을 “내 아버지의 집”(요한복음 2:16, 13~16절 참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내 집”(마태복음 21:13; 마가복음 11:17)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더욱 더럽혀질 것을 아셨던 예수께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누가복음 13:35)고 말씀하셨으며, 이 예언은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몇 년 전, 벨슨 자매와 저는 예루살렘의 옛 성전에서 현재 남아 있는 서쪽 벽의 왼쪽 터널에 있는 최근의 발굴 현장 사이로 안내받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날을 기도하는 유대인 랍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솔로몬 성전의 방식을 따라”(니파이후서 5:16) 성전을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예수의 시대까지, 의식은 산 자만을 위해 성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영의 세계에서 전해지는 길을 여신 후에는, ...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성전에서 행해져 왔습니다.”(Bible Dictionary, “Temple”, 781쪽)

저는 각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성전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성약의 자녀

성전에 관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 즉 그분의 “성약의 자손”(제3니파이 20:26; 25절 참조; 사도행전 3:25)과 맺으신 성약에 관해 알게 됩니다.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나라가 그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성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창세기 17:7, 22:18; 아브라함서 2:9~11 참조) 그 성약은 이삭에게 재확인되었으며(창세기 26:1~4, 24 참조), 야곱에게 반복되었습니다.(창세기 28:35:9~13; 48:3~4 참조)

그 성약의 흔적은 구약전서, 신약전서 및 몰몬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몰몬경 표제지 참조) 그 성약은 이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의 회복의 일부로서 신성하게 회복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4:58 참조)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의 성약이 오직 “후일에”(니파이전서 15:18) 성취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때입니다!(교리와 성약 110:12~16 참조) 우리가 바로 그 성약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몇몇 구절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모사야야서 5장 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성 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할
만큼 높은

도덕적 행동 표준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내적인 평화와 영적인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ard or branch

Stake or mission

1 M/F

2

3

4

5

6

7

8

9

File number

Limited-
Issue a Lim-
unwedded
firmations for
observe sealin-
parents. This r-
day of the mon-

딸이 되었느니라.”

제3니파이 2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성전 및 인봉하는 권세의 회복

회복의 과정에서 성전 사업은 매우 높은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준 첫번째 계시는 이 교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제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는 말라기 제4장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들에게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2:1~2 참조)

엘리야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부활절 일요일인 1836년 4월 3일에 왔습니다. 그는 커틀랜드 성전으로 와서 천사 모로나이가 예언한 그대로 인봉 권세의 열쇠를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4~16 참조)

성전에서는 의식이 집행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교리와 성약 84:20 참조) 그러한 의식과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교리와 성약 84:21)합니다.

현대의 성전에는 “여호와께 성결”(출애굽기 28:36; 39:30 참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건물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성전 의식과 성약,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성전의 회복

커틀랜드 성전은 예비적 성격을 지닌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것을 지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기념물로서 오늘날 자리하고 있습니다. 훗날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리와 성약 124편 29~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었으니—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요”

32절은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경고를 전해 줍니다.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의 죽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4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

우 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128편의 머리글은 이 편이 서한임을 알게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왜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편지를 썼을까요? 그는 은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난



꼭도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에드워드 헌터의 집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헌터의 집 지붕 아래에 적힌 이 놀라운 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주제를 다시 계속하노라. 이는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추적당한 이래로 그 주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내 느낌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나라. ...

“...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바울이 조상들에 대하여 말하기를—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

“...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 ... 죽은 자를 위한 침례니라. ...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 필요한 것임이나라. ...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온 것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 드러나리라.”(1, 15, 18절)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나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약 6,000명의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성전을 뒤로 하기 전에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그 장엄한 모습 그대로 다시 세워져 매우 분주한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부를 떠난 지 약 30년 후에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조직화된 방법으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수행된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1층 헌납식이 있던 1877년 1월 1일—이 해는 브리검 영 회장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조상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천 년을 이곳 감옥에 누워서 이 경륜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 그들이 우리 귀에 대고 어떤 말을 속삭이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권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마치



약 6,000명의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성전을 뒤로 하기 전에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그 장엄한 모습 그대로 다시 세워져 매우 분주한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하늘의 뇌성처럼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가 수적으로 적은 이 백성을 지켜보고 있어 이들이 인류의 구원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일곱 우레가 치듯이 외치고 싶습니다.”¹

지속되는 계시

1894년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1807~1898)은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들이 이 시간부터 자신들의 계보를 할 수 있는 만큼 거슬러 올라 찾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사슬을 멀리 이어가십시오. ... 이것이 이 백성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²

가족 역사 사업의 목적은 우리 조상들의 성명과 자료를 얻어 그들을 위해 성전 의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8편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1838~1918)의 주목할 만한 성역에 관한 계시 중 가장 으뜸가는 것입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것을 서거하시기 전 달에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다음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18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1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 곳에 무수히 많은 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

“그들은 모여서 사망의 띠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

“이 큰 무리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 받을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리고 그 곳에서 그가 영원한 복음과, 부활의 교리와 회개를 조건으로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더라.”(11~12, 16, 18~19절)

그리고 51절은 이렇습니다. “이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 그 곳에서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성전은 그 면류관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함을 느낍니까!

잠시 주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오래 전에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넬슨 자매와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 부부를 어느 활동 모임에 모시고 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살 된

제 아들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의 침실 벽에 걸어 놓은 사진에 관해 김볼 회장님께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성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원대한 안목을 지니신 김볼 회장님은 “어떤 성전이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한정된 안목을 지닌 우리 꼬마를 정말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뉘깬요, 당연히 결혼하는 성전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1907~1995)은 돌아가시기 전 해인 1994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자신이 회원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위대한 상징의 장소요, 가장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는 고귀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하기를 바랍니다.”³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그 소망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전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

및 가족 역사 사업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 오셨습니다. 1999년 5월, 그분은 가족 탐구(Family Search™)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평균적으로 50,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찾습니다. 그 서비스의 일부인 가계 자원 파일(Pedigree Resource File)을 통해 우리는 계보와 관련하여 한 달에 백만 명 이상의 이름을 새로이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10억 명 이상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헝클리 회장이 1981년에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에는 성전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19개였습니다. 지금은 122개가 있습니다. 건축 중인 것이 더 있으며, 발표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저는 각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성전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할 만큼 높은 도덕적 행동 표준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내적인 평화와 영적인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질투심이나 적대감을 없애고,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적절한 시기에 관해 신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을 인용하겠습니다.

“선교사 부름장을 받지 않았거나 성전에서 결혼할 일정도 없는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의 독신 회원들에게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한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제한 사용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형제 자매나 친구의 성전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바람만으로는 자신들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2002년 11월 12일 및 2005년 6월 21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참조)

이 지침이 “십대 후반이나 이십 대 초반의” 독신 회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몇 년 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안정된 방식으로 자리가 잡히고, 그들의 성전 예배가 인생 내내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준비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주는 소책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성전 의식 및 성약의 장엄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성전을 염두에 두고 구애하십시오. 여러분과 동반자가 거룩한 성전의 제단에서 무릎을 꿇을 때 두 사람은 동등한 협력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 단위가 됩니다. 영성, 사랑, 참된 협력자로서의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식과 성약에 대한 충실은 여러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긴급함과 기회의 시간

대리 성전 사업의 긴급함은 2003년 3월 11일자 제일회장단 서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 의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살았습니다. ...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중요한 기본적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⁵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미리 보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33)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능과 주권과 ... 승영과 영광”(교리와 성약 132:19)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

2003년 5월 4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행한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 말씀에서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309, 299쪽. 또한 교리와 성약 138:47~50 참조.
2.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 G. Homer Durham(1946), 157쪽.
3. 제임스 이 파우스트, “President Howard W. Hunter: The Way of an Eagle”, *Tambuli*, 1994년 9월호, 4쪽.
4. 이 소책자는 성전 준비 세미나에서 학생 교재로도 사용된다.(물품번호 36793 320)
5. “제일회장단 서한”,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7쪽 참조.



하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은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을 집행하기 위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성전 결혼 의식에서 여러분이 맺는 성스러운 성약을 참되게 지키는 것, 즉 결혼 관계에서 해의 왕국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서약을 맺고 난 후 행복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합당성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면, 우리는 다른 개인 또한 가족과 더불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과 같은

훌륭한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체셔 고양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말해 주겠니?”

체셔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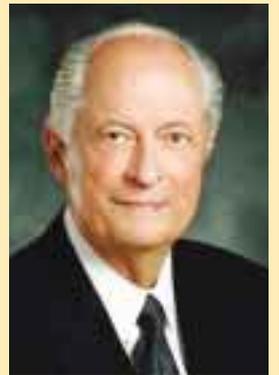
앨리스가 말합니다. “사실 난 어디라도 좋아.”

그러자 체셔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어딘가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하고 앨리스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체셔 고양이는 흥미로운 진리를 말해 줍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분명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딘가”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알아야 하며 그곳에 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과 결심을 일찍부터 지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내 아들이아,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지금 행하십시오.

성전 추천서

일단 우리가 해의 왕국의 결혼을 결심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또한 행해야 합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여러분은 추천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감독이나 지부 회장, 그리고 그 후에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과 면밀한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구주와 구속주로서의 그분의 역할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이 후일에 이루어진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며, 그분만이 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의 열쇠들을 갖고 계시며, 그 열쇠들을 행사하도록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지지하십니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십니까? 교회의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직원들을 지지하십니까?”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가족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성찬식과 신권회에 참석하고, 복음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거래에서 정직하십니까?”

“완전한 십일조를 내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신권 역원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죄나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천서를 결혼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일의

결 혼은 등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동반자에게 묶고 인생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중요성은 여러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살 동반자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혹은 그녀가 이 추천서의 조건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추천서를 받은 후에, 여러분은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결혼을 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인봉되기 전에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해의 왕국의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반자를 선택할 때, 둘 다 해의 왕국의 결혼 관계를 위한 소망, 즉 영원한 가족을 갖고자 하는 소망, 영원한 배우자를 갖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로를 지지함

결혼은 등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동반자에게 묶고 인생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생겨나면 여러분은 자녀를 엄마 아빠에게 묶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밧줄은 등산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산에는 바람과 비, 눈과 얼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그 영원한 산에서 여러분을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상에 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들어올려 주고, 내가 그대를 들어올리면, 우리는 함께 위로 올라가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제 삶에서 이 개념을 잘 나타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첫해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이전의 삶에서 성취한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를 막론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신감을 남김없이 빼앗아 버립니다.

학교 생활에서 한참 중요한 시기에 한 선교부 회장님이 제게 장로 정원회 회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가 제 생애에서 부름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유일한 때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봉사할 때는 언제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여러분이 부탁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장로 정원회 회장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아내는 수년 동안 제게 도움이 된 말을 했습니다. “밥, 나는 하버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는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가 좋아.” 그러면서 아내는 팔로 저를 감싸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영원한 동반 관계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도전의 순간을 위해 이 구절을 적어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권면으로, 네 모든 행함으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교리와 성약 108:7)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매일 말하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행동하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영원한 진로를 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진로를 정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는 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 사람과 데이트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 또는 그녀가 모임에 참석하고 간증을 갖고 있으며 지금 영원한 목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불행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펐던 순간들은 제가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던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

1976년 11월 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결혼에 대한

많은 교회 회원들은 독신이었을 때 갖고 있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멜리사 하월

“나 는 훌륭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까?”
“우리 부모님은 고통스럽게 이혼했는데, 나도 결혼하면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

“내가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때로 이러한 두려움들은 독신인 후기 성도들이 결혼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치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여러분은 이혼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이혼을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오늘날 증가하는 이혼의 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독신 성인들이 이혼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행복하고 충만한 영원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어렵지만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고, 그런 다음 신앙으로 전진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영국 브리스톨의 스코트 벨록은 부모가 그들의 결혼에 중지부를 찍었을 때 열여덟 살이었다. 그 결과 그는 언젠가 자신도 이혼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한편 부모의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데이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결혼에 대한 결심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벨록 형제는 말한다.

그와 그의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그가 가진 걱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다.

벨록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참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언쟁을 줄이고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가서 ...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전서 3:7)라는 훌륭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벨록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려고 했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부적절한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때로 이러한 결함은 결혼 생활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콜로라도 주 하이랜드 랜치에 사는 켄 놀쉬가 아내 샬리스와 결혼했을 때, 그는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배우자라는 오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가 자신의 짐을 주님과 나누는 방법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의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놀쉬 형제는 결혼 생활에 온전히 전념하기를 바랐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내의 필요 사항을 나 자신의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기적인 활동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놀쉬 형제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태복음 26:42)라고 겸손하게 말씀한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로 한 것을 상기한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 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놀쉬 형제는 말한다.

놀쉬 형제는 자신과 아내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가 누리는 기쁨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일은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재정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두려움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주

남의 인도를 구하는 부부들은 그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말씀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결혼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책임에 대해 정말로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면하고 충실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내고 성실하게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의심에 맞섬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면, 좋은 것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그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았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입니다. 압박이 늘어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존재에게 절대로 저서는 안 됩니다. 의심에 대담하게 맞서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35] 계속 올바른 길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을 위해 펼쳐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십시오.”

제프리 알 룬드버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8쪽.

그러나 여러분은 이로 인해 성장하게 될 것이며 희생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취할 방안을 마련하시지 않고는 결코 아무 명령도 주시지 않습니다.”¹

남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클라이드와 조이스 홀롱웨인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홀롱웨인 형제는 장차 가족을 부양하게 될 일에 대해 염려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어느 날, 저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양해 주시는가에 대한 대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재정적인 걱정을 해결해 줄 열쇠는 십일조, 즉 상황이 어떻든 십일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ithing and Other Offerings

Date: _____ Ward or branch: _____

Name (last, first, middle): _____ Use the same spelling on all your slips.

Full address: _____

Tithing	\$	
Fast offering	\$	
Ward missionary	\$	
General missionary	\$	
Book of Mormon	\$	
Humanitarian aid	\$	
Temple construction	\$	
Perpetual education	\$	
Other (specify)	\$	
Total	\$	

PLACE STAMP HERE



십일 일조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우선시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홀롱웨인 형제는 니파이전서 17장 3절에 있는 것과 같은 경전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저는 결혼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홀롱웨인 형제는 말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보수가 적은 일을 했으며 그의 수입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을 더 받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의 재정적인 상황은 나아졌으며, 홀롱웨인 형제는 현재 그가 선택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고대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결혼 생활은 사람들의 재정적, 사회적, 정서적 및 영적 생활에 영향을 준다.

매사추세츠 주 월폴에 사는 에이미 바이얼리는 결혼 생활이 가져올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곧 남편이 될 바트와 그녀가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짐은 가벼워졌다. 그녀는 또한 경전을 펼쳐 모사이아서 2장 41절을 읽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성구는 제가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더라도, 제가 충실할 경우 저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가족을 갖는 것이 독신 시절에 즐기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이얼리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승인하셨음을 아는 것은 제가 가졌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 방식이 바뀌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목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부 독신 성인들은 결혼이 경력을 쌓거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와이 주 밀리라니에 사는 테클라 쟁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둘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학업과 직업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쟁크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녀는 어떻게 학업을 마쳐야 할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은 둘 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 부부는 쟁크 자매가 그들이 앞으로 갖게 될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남편이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먼저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라고 쟁크 자매는 말한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배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훌륭한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해 그의 손녀들에게 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들아, 너희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너희는 동시에 100퍼센트의 아내, 100퍼센트의 어머니, 100퍼센트의 교회 직원, 100퍼센트의 직장인, 그리고 100퍼센트의 완벽한 사회 봉사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 것이 “여성에게 각각의 일을 제때에 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했다.²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소니아 로프레이아도 피로스와 가브리엘 피로스가 약혼을 했을 때, 그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해야 할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일 년이 지나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때 이론상으로는 너무도 간단하던 모든 일이 실천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피로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직면했으며,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했으며,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데이트 중인 사람들의 관계 중 일부에 존재하는 의심과 불확실에 대해서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각 사람은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에서

주 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커다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은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피로스 형제와 자매는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물품 번호 35311 320)를 살펴보고 함께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혼 전에 내린 결정, 즉 피로스 형제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로스 자매가 현재의 직장을 잠시 그만 두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했으며,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니파이후서 11:3 참조) 그 부부는 희생의 결과로, 피로스 형제의 직장에서의 발전을 포함하여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직도 몇 가지 도전과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피로스 자매는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갖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³

올바른 단계를 취하고 주님께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느낄 때, 여러분은 결혼 생활과 가족 안에서 커다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그는 또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과 사랑으로 대치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멜리사 하월은 콜로라도 주 오로라 스테이크 오로라 하이랜드 와드 회원이다.

주

1.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5~56쪽.
2. “A Message to My Granddaughters: Becoming ‘Great Women’ (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위대한 여성이 됨)”, Ensign, 1986년 9월호, 19쪽.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빛, 1985년 2월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겠다는 결심을 증가시켜야 한다.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는가?

니파이후서 25:26: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 [우리]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수 많은 공과로 인해 지식은 증가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 수백만 여성들의 삶에 미친 기적적인 영향을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Ambitious to Do Good”, *Ensign*, 1992년 3월호, 4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은 기본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공부하고 영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모든 자매들은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 [모로나이서 6:4]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는 여러분을 강화하며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영성을 개발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1쪽)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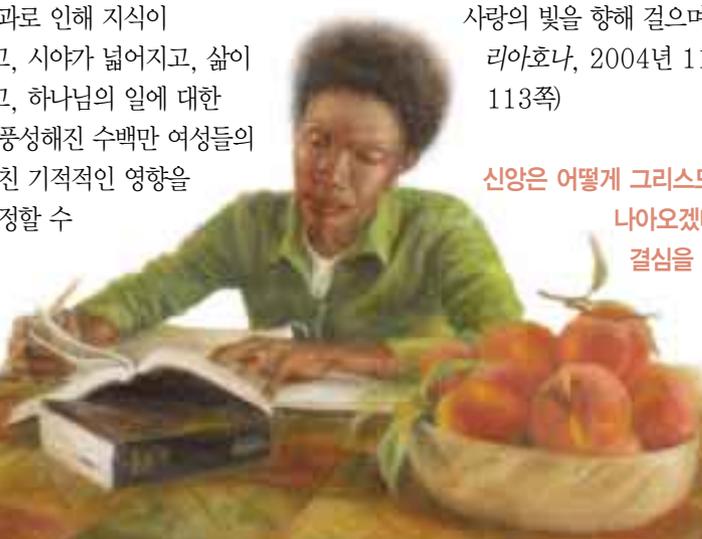
제2보좌: “우리 모두가 ...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이르는 길을 찾고 무한한 속죄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주는 천상의 축복들 중 하나는 주님에 대해 똑같은 간증을 지닌 여성들 간의 결속된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빛을 향해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 걸으며”,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13쪽)

신앙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겠다는 결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경전은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가르칩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원과 승영의 문을 열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99~10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1) 하나님의 종이 말하고 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3) 의로움에 대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십시오. (4) 복음의 법과 의식, 그리고 성약에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5)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도록 신앙으로 구하면서, 힘 있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 필멸의 지상 생활의 어려운 도전이 찾아올 때,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만, 신앙을 갖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만 화평, 희망, 그리고 이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2~73쪽) ■





▼ 조슈아 브루너: “저는 성구 익히기로 경전에 대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세미나리 첫해에 처음으로 배운 성구를 기억합니다.”



▲ 나에미 마우치: “세미나리는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줍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자주 경전을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엘리자베스 나이르츠: “저는 침례를 받기 전에 세미나리에 참석했어요. 세미나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에요.”



▲ 루카 메를: “세미나리에 있는 청소년들과는 경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미리암 생크: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다음 작은 일들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들어맞습니다.”



세미나리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큰 만족을 얻는다.

재닛 토마스
교회 잡지

요 하네스 말츠는 또 지각했다. 세미나리를 마치고 올 때 타는 기차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서둘러 학교에 왔다. 그러나 지각이었다. 그가 지각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세미나리를 하고 왔다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늦잠을 잤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오는지 말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앞이었어요. 우리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영어로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반 아이들은 모두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세미나리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학교에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와, 너 정신

나갔니? 라고 했어요.”

요하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힘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때, 아침에 지니게 된 영적인 힘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세미나리

요하네스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 잘츠부르크-플라츠가우 와드 회원이다. 그의 스테이크에 있는 대부분의 침대들은 일주일에 네 번 세미나리에 간다. 어떤 학생들은 집회소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추위와 어둠을 참아낸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가 세미나리를 가르치는 자기 집 거실로 간다.

“우리 엄마가 저의 세미나리 교사예요. 저는 항상 공과를 들으면서 아침을 먹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세미나리를



하지요. 세미나리는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는 더 명랑하고 행복해요.”라고 린즈 와드의 줄리아 그로츠는 말한다.

줄리아와 그녀의 동생 카리나는 함께 공부한다. 그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잘츠부르크-플라츠가우 와드의 벤 쟁크는 세미나리에 가는 것이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고 느낀다.
“세미나리에 가는 날은 더 나은 하루가



돼요. 그것은 학교에서도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는 날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 듯 느껴져요.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세미나리 일년차 학생들에게 어둡고 추워서 얼굴이 얼얼하고 발 밑에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세미나리에 가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세미나리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개학하기 전 토요일, 잘츠부르크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신년 세미나리 개강을 위해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모였다. 공과가 있기는 해도 교회 모임이라기보다는 큰 파티 같다. 서로 자주 못 보는 많은 친한 친구들이 오후에 모여 저녁을 먹고 춤을 추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클라겐푸르트 와드의 마리 크렌은 4년 전 세미나리에 다니기 시작한 것을 기억한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모이는 다른 행사들, 즉 청소년 성전 방문, 청소년 대회, 청년 캠프 및 토요 세미나리 등을 열거했다.

세미나리 첫해를 시작하는 웰스 와드의 데이비드 푸치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만 알고 있지만, 세미나리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저는 경전에 대해 배우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린즈-우르파 와드의 스테파니 카프카 역시 그녀의 세미나리 첫해를 고대하고 있다. “저는 혼자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대돼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청소년들이 있을 테니까요.”

스위스의 세미나리

이웃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신년 세미나리 개강을 위해 모였다. 그들은 각처에서 바젤에 있는 집회소로 왔다. 잘츠부르크에서처럼,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은 축제 분위기다. 활동실은 무도회를 위해 장식되고,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가 데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가정 학습과 반 수업을 병행한다. 아라우 와드의 에스텔 한센은 세미나리가 어떻게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다행히 많은 회원들이 가까이 살았다. 약 여덟 명의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교사의 집에서 만난다. 그들은 또한 하루는 집에서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저녁에 모여 세미나리를 한다. “저는 세미나리 비디오를 특히 좋아합니다. 내용이 정말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요.”라고 에스텔은 말한다. “저의 남동생 쟈는 이제 세미나리를 시작해요. 동생은 그것이 중요하고 세미나리에 감으로써 축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세미나리에 대해 말해 봤지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성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스테이크의 몇몇 학생은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프레텔른 와드의 레베카 비스너와 그녀의 동생 뇌미는 집에서 모임을 가진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세미나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공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교사님은 매우 적절한 예를 들어 보여 주고, 재미있고 농담을 잘합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는 웃으면서 배워요.”

바젤 와드 집회소에서는, 애니카와 사브리나 완케 등 두 자매와 그들의 남동생 쟈이 건너편의 작은 공원에서 토요 세미나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바젤 와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세미나리에 대해 알고 그것을 좋아한다. 세 명 모두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부한다. 그들은 때로 아버지가 경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약간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함께 공부할 때 얻는 느낌을 좋아한다. 쟈는



이렇게 말한다. “학교에서는 영을 느끼기가 힘들지만, 세미나리를 할 때는 마음에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애니카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전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만큼 자주 영을 느낄 수 없지만, 공부를 하면 느낄 수 있어요.”

비엘 와드의 멜리사 로머 또한 가끔 세미나리에서 얻는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에서는 성신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미나리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느낌에 대해 말할 때 거듭해서 떠오르는 한 단어는 행복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물론 힘든 일이다. 그리고 종종 춥고 어둡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참으로 그렇다.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 에리히 스투시: “세미나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경전 찾이었습니다.” 보도 루카우어: “함께 배우는 것이 훨씬 좋아요.”

것과 경전에 실려 있는 내용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 그들은 그러한 행복을 택할 것이다. ■



▲ 사라 슈나이더: “제 여동생은 금년에 세미나리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함께 공부합니다. 동생은 세미나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 토마스 푸치스: “저는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항상 배웁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사님이 계십니다.”



▲ 알렉 폰 올멘: “제가 세미나리 수업을 좋아하는 것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좋아해요.”



아래: 바젤 집회소에 있는 스위스의 세미나리 학생들. 이전 단체 사진: 오스트리아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잘츠부르크-플라츠가우 와드에 모인다.



◀ 찬탈 프스타: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출생 이전의 생



회복된 복음의 기초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는 연재 기사.

모 든 주요 기독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만이 인류가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여 계속 살게 된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이 필멸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한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입니다.”¹

인생의 신비를 품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세의 교리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전세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이 들어맞고 이치에 맞습니다.”²

전세에 관한 이해 없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지상 생활의 목적과 신성한 우리의 운명에 대해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다.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전세에 대한 이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거의 500년 동안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배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성직자들은 이 교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거부한 이후로 그들은 삶의 신비를 결코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줄에 진주를 꿰려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³

인간은 영원함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성한 진리를 회복하셨으며, 전세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29) 그러므로, 우리의 예지가 항상 존재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시작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살았던 전세의 어느 먼 시점에서 우리를 위한 영체가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늘 부모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것과, 필멸의 출생을 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지식은 우리와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의해 준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그분이 더 밝은 예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그분처럼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는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⁵ 우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생각에 망각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신앙으로 걸으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는 시험을 받고 신앙으로 생활하기 위해 지상에 왔기 때문에, 주님은 전세에 관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시된 것은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전세의 존재에 관해 계시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따라서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우 리는 전세에서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지상에
오도록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

• 우리는 천국회의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지상에 오도록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으며, 이 훌륭한 기회에 대해 기뻐하며 소리쳤다.(욥기 38:7; 아브라함서 3:24~28 참조)

•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교리와 성약 76:25)였던 루시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모세서 4:1)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했으며, 필멸의 경험의 조건을 변경하고, 우리의 선택의지를 없애겠다고 제의했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중 삼분의 이에 의해 거절당했다. 그러자 루시퍼는 모반하였으며 천국에 전쟁이 있었으니, 말의 전쟁과 영들의 대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를 따르는 “천군의 삼분의 일”(교리와 성약 29:36)과 더불어 쫓겨났다. 그는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현재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겠다는 악한 결의를 갖고 일하고 있다.(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36~39; 모세서 4:1~4 참조)

•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기억이 없이 지상에 왔으나, 개인적인 힘과 재능을 갖고 태어났으며, 마찬가지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연약함도 갖고 태어났다.(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104:17, 138:55~56; 아브라함서 3:23 참조)

• 지상 생활은 우리 존재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지만, 그것은 시험과 계속되는 발전의 중요한 무대가 된다. 이 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아브라함서 3:25~26 참조) ■

주

1.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53쪽.
2. “The Mystery of Life(인생의 신비)”, *Ensign*, 1983년 11월호, 18쪽.
3. *Ensign*, 1983년 11월호, 16~17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6:312.

두 번



더블류 로프 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아버지께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제 인생을 두
번씩이나 구해 주신 데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시 저는 두 살이었고 형은 네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족 농장에서 소들을 먹이고
계시는 동안 아버지와 농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겁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에게로
뛰어갈 때까지 형과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은
말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로프가 빠졌어요 ... ! 로프가 빠졌어요 ... !”라고만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제 형이 제가
관개수로에 빠졌다는 말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독에서 발이 미끄러져 흐르는
물속에 빠져버린 그 도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도랑을 따라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빨간색 스웨터가 물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도랑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후, 아버지는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형이 재빨리
상황을



구조팀

파악하여 아버지께 급히 알린 것에 대해 영원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 제 목숨을 구해 주신 것도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위험에서 구조됨

나중에 제가 더 자랐을 때 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위험 대신 제 영적인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스포츠를 했고 주로 미식축구와 야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해에 저는 시즌이 끝날 때 열리는 올스타 야구 경기의 참가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시합이 있는 후 학기가 끝나갈 때 저는 제가 살던 마을의 한 야구 팀에서 선수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팀은 프로 팀이나 준프로 팀도 아니었지만 저는 선수로 초청 받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시합이 일요일 오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적당히 합리화했습니다. 교회 모임들은 오전에 열리므로 저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들에 참석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후 일요일 오후마다 경기에 참여하려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품고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야구 팀의 제의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스테이크 회장이셨지만 현명하게도 자신을 억제하였고, 저에게 야구의 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는 “그래, 네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다만 그것이 주일학교 수업에 미칠 영향을

기억하거라.”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해답은 제 마음에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야구팀의 제의를 거절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야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수년 동안 교회의 소프트볼 팀에서 선수로 뛰는 것을 즐겼고 일요일에는 경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힘든 결정을 내리도록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 주신 방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제가 내리는 결정이 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식축구에 작별을 고했

저는 20세, 즉 당시 선교 사업을 나가는 나이가 되면 선교 사업을 하려고 언제나 계획했습니다. 유타 주립대에서 두 시즌 동안 미식축구 선수 생활을 한 뒤에 저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때 귀환 선교사 중에서 선교 사업 이후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식축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몇 달 연기하여 한 시즌 더 선수로 뛰고



나의 아버지

저

는 코치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일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식축구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팀에
작별을 고하고 주님께
봉사하러 떠났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즌이 끝날 무렵, 저는 그 다음 해 선발 쿼터백으로 뽑혔습니다.

코치는 제가 미식축구에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 놓고 떠난다는 것에 대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시즌 더 뛰라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이 기회를 뺏겨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치의 조언과 권고를 들었지만 그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일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년을 더 기다리면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미식축구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팀에 작별을 고하고 주님께 봉사하러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저의 남은 생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가 오늘날의 제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미식축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제게 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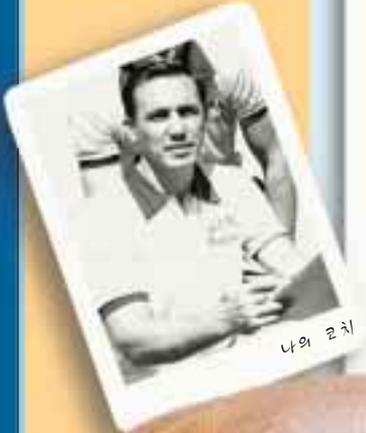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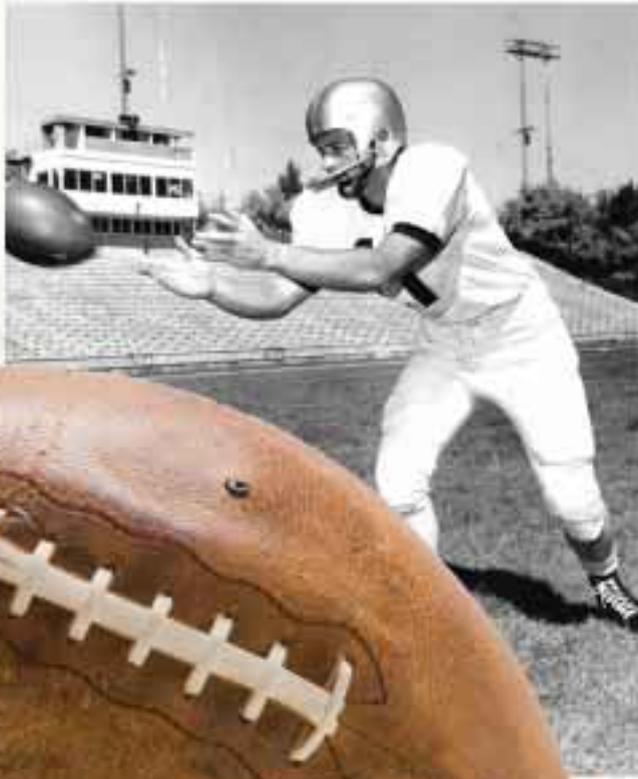
사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미식축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일년 동안 미식축구를 했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엄청난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이 기회들은 아마도 제가 선교 사업을 더 연기했거나 심지어 포기했더라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구를 하기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한 제 결정은 제가 미식축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봉사하게 한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구나 미식축구를 그만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한 결정들은 제 인생에서 일찌감치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고 제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두 번 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는 관개수로의 흙탕물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유혹의 웅덩이로부터 저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

유타 주립대에서 미식축구를 하며



나의 코치



생명의 물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 속에 잠겨 있게 하라
(요한복음 4:7~14 참조)

질 의 응답

제 친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껴요.
친구가 교회에서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친구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를 안다면 친구를 더 잘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불편해 하는 것이라면 편하게 느끼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우정 증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교회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그 점을 아는 것이 그녀를 더 잘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만일 친구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녀가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이야기해 보도록 권유하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친구에게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오는 화평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가 교회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를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그녀를 교회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그녀를 볼 때 인사를 한다거나 수업이나 모임 때 함께 앉는 등, 그녀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친구에게 교회에서 영을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친구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 용서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또한 그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이 어떠한 황금률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즉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친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7:12) 만일 자매님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가 자매님의 옆에 앉기를 원하나요? 누군가가 이곳 저곳을 소개해 주기 원하나요? 안녕이라고 인사하기를 원하나요? 그러한 단순한 것들이 친구가 원하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와드나 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특별한 환영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그녀를 감독이나 지부 회장, 청년 지도자들과 주일학교 교사, 자매님의 친구들, 그리고 그녀와 관심사가 같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그들은 자매님이 그녀에게 교회 이곳 저곳을 안내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녀에게 모임들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활동들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자매님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포함시킬 때 그녀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은 자매님의 친구로 하여금 자신이 올바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배우도록 초대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59:9~10 참조)

교회 회원들은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모사이야서 18:21) 자매님과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환영받는다 느끼도록 도와 줄 때,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그 무엇도 그녀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로마서 8:35,

38~39) 자신이 환영 받지 않는다는 느낌마저도 말입니다. 자매님이 친구를 환영하고자 노력하고 그녀가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할 때 그녀가 영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라면 그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스포츠와 각종 모임 등의 활동에 초대함으로써 우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그녀가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케사리아 루페 마투, 19세,
누쿠아로파 통가 남 스테이크 하테이오 제3와드

자매님과 자매님의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이 소녀를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제 친구가 되어 주려고 노력할 때 저는 제가 교회와 학교, 상호 향상 모임,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곳에서 환영받는다 느끼게 됩니다. 그녀를 초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 그녀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넬슨 이 워트, 15세,
유타 주 시러큐스 스테이크 센테니얼 파크 와드

친구가 후기 성도 교회의 예배 모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의 간증을 지닌 친구로서 자매님은 신속히 행동에 나서서 그녀가 거리감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세요.

- (1) 교회 회원들이 항상 친구와 악수를 나누고 모임 중에 그녀와 함께 앉도록 계획한다. (2) 그녀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 준다. (3) 그녀가 참석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그녀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도와 주도록 부탁한다. (4) 그녀가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한다.
- 크리스찬 오이에 장로, 23세, 나이지리아 포트 하트 선교부



그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녀를 어떻게 대하면 될지 주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그녀가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청남 청년들 몇 명과 만나게 함으로써 친구가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그들과 사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아트릭체 트로이스, 18세,
퀵트 지부 이탈리아 사르데그나 지방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친구가 교회 활동에 더 자주 나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도록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가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스틴 뒤세르, 13세, 프랑스 니스 스테이크 살롱 와드

교회 활동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 모임에서 그녀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특별한 친구로 대하고 자매님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자매님은 더욱 많은 친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레첸 몬티칼보, 18세,
필리핀 오르목 스테이크 올부에라 와드



영이 자매님의 간증과 모범, 그리고 사랑으로 그녀를 감화시키도록 기도하세요. 복음이 자매님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하세요. 친구는 교회에 대해



회원들로서 우리는 와드와

지부가 남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 받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우호적인 장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종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청남 청년, 성인들에게 따뜻하고 우호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엠 러셀 블라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The Hand of Fellowship", Ensign, 1988년 11월호. 29쪽.

알고 싶어질 것이고 교회에 속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네사 튀푸로토아, 19세,
타히티 라로마타이 스테이크 히푸 지부

저라면 친구와 이야기해서 왜 그녀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그녀를 도와 줄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면 누구든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이링 피델리나 발레, 19세,
마타갈파 니카라과 지방부 씨우다드 다리오 지부

저라면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면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두 명 모두 도와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녀를 격려할 것입니다. 저의 간증도 나눌 것입니다.

에리카 수잔나 피게로아 허레라, 19세,
엘 살바도르 아티퀴자야 스테이크 수크레 와드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인쇄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질의 응답 3/06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대답은 2006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친구가 정말 우울해 보이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

퀸틴 엘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사악함을 나타내는 실제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창세기 18:20)” 그들의 죄악은 너무도 크고, 의로운 자는 너무도 적어 하나님께서는 이 평지의 두 도시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의 호색적인 얼굴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¹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TV나 인터넷을

통해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많은 것들이 우리의 거실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악을 분리시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5:19 참조)² 복음 교리는 우리가 불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거치고 더 큰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니파이후서 2:11; 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우리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주님을 향한 제단”(창세기 13:18)을 쌓았던 것처럼 해야 하며 루이 “소돔을 향해 그의 장막을 쳤을 때”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창세기 13:12)

세상의 빛이 됨

1969년 초,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꽃의 아이들(히피족)” 시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마약 사용과 모든 종류의 난잡하고 사악한 행동의



세상의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천막을 쳐야
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모든 성취,
 모든 우아함, 수학, 세련된
 음악,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의 성취는 성도들에게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결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한 어떤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후기 성도들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남도록 장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원로였던 해롤드 비 리 장로(1899~1973)님이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신권 지도자 그룹과 만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내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회원들이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건설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의식들과 원리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³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은둔 생활은 해답이 아닙니다.⁴ 긍정적으로 볼 때 세상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과제의 일부이며 우리의 재능을 계발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1801~1877)은 “모든 성취, 모든 우아함, 수학, 음악,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의 성취는 성도들에게 속한 일이다.”⁵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님(1895~1985)은 “탁월함과 우수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인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⁶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성취하려면 교회 회원들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세상의 죄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교리와 성약 25:10, 59:9 참조)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1. 여러분이 헌신적인 후기 성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저는 직장 생활 초기에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한 후 저는 어떤 법률 회사에 취직하고자 했습니다. 그 회사와 관련된 교회 회원은 없었지만 회사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나절 동안의 일련의 면접 후, 그 법률 회사의 대표와 다른 변호사 두 명이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대표는 점심을 먹기 전에 술을 마시고 싶은지, 그리고 그 후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두 번 다 사양했습니다. 두 번째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 회원이며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채용되었고, 몇 달 후, 그 대표는 술을 권한 것이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를 통해 제가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할 경우에만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인품과 성실성을 나타내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 때, 제가 아는 몇몇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후기 성도라는 사실을 동료들이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솔직하게 믿는 바를 선언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소돔을 향해 그들의

원주: 고을 사진, 코에그 데어닝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창세기 13:12 참조)

2.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개인 생활에서 우리는 사악한 “죽음에 이르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⁷하는 것과 파괴적인 “세상의 행동적, 지적 유행”⁸을 피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회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기다리는 양들 같아. 왜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이 말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들릴 뿐, 충실한 후기 성도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권고에 담긴 교리들과 원리들을 공부하고 그 후에 성신으로부터 확증하는 증거를 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모든 가슴 아픈 실수들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살다 간 모든 세대들의 삶의 경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께서 성임하신 종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을 안다면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수하다면, 영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장막을 성전(창세기 13:18 참조)과 우리가 주님께 한 성약들을 향해 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주

1. “Living in the Fulness of Times”,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쪽.
2. 엘 톱 페리, “In the World”, *Ensign*, 1988년 5월호, 13~15쪽.
3. 모임 개인 기록. 교리와 성약 115:5 참조. 해롤드 비 리, “Your Light to Be a Standard unto the Nations”, *Ensign*, 1973년 8월호, 3~4쪽 참조.
4. 고든 비 힝클리, “Don’t Drop the Ball”, *Ensign*, 1994년 11월호, 48쪽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196쪽.
6. “The Gospel Vision of the Arts”, *Tambuli*, 1978년 2월, 5쪽.
7. C. Richard Chidester, “Worldly, Worldliness”, in 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1992년), 4:1587. 엘머서 4:8 참조.
8. 닐 에이 맥스웰, “Overcome ... Even as I Also Overcame”, *Ensign*, 1987년 5월호, 70쪽; 교리와 성약 121편 34절~35절 또한 참조.



교회 잡지를 통해

공과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청년 또는 청년들은 결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마약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인생에서의 성공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얻든지 돈을 의미한다는,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사람들과 매체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젊은이들이 접하는 악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 악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리를 가르쳐 주는 적절한 경전 구절,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133편 5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이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니파이전서 19:23)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그 원리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치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창세기 39장 1절~20절 참조) 그러나 여러분은 벌써 15살 난 자녀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어디에서 이야기나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교훈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공과 자료들 중 하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잡지들은 복음에 기초하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 자료를 매달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글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퀘틴 엘 쿡 장로는 젊었을 때 그가 후기 성도임을 알고 그에게 술과 포도주를 권함으로써 그의 정직성을 시험했던 한 장래의 고용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쿡 장로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희생시킬 것인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도덕적 기준을 지킬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 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쿡 장로의 글은 올해 복음 교리 지침서 제8과,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매달 교회 잡지에 실리는 특정 기사들은 주일학교 지침서 혹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에 나오는 공과 주제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사는 특정 공과와 관련되었든 아니든 영적인 원리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그 기사를 읽고 그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사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이번 호의 주제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보면 여러분은 특정한 달에 다루어지는 영적 주제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개요

잡지에 실린 글을 가정의 밤 공과의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쿡 장로의 글을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개요를 준비하면 됩니다.

- 원리: 사악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

- 경전: 창세기 39:1~20, 여호수아 24:15, 24, 요한복음 15:14, 18~19.

- 배경 이야기: 쿡 장로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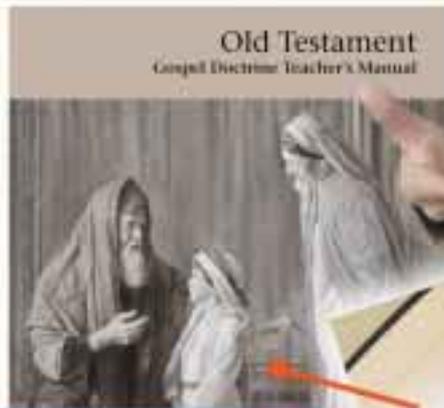
기준에 대한 도전에 언제 직면하게 될지 모르며, 그러므로 복음의 기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 더 젊었을 때 극장에 갔다가 영화가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친구가 여러분이 그 극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네 교회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러 갈 줄은 몰랐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들을 나눌 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도전에 여러분도 직면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 중 한 명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들(이야기 포함, 각 대회 특별호의 “지도자들의 말씀” 참조), 교회 비디오, 지침서들, 혹은 교회 웹사이트 www.lds.org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또다른 중요한 자료가 가정에서든 교회의 교실에서든 공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준비된 기사와 이야기들과 함께 매달 여러분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잡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

기타 보충 자료

교회 잡지에 실리는 개인 경험담은 종종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 하고 싶어하는 주요 개념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일학교를 선택했다”(45쪽)는 이야기를 룩 장로가 다룬 원리들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성은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그 이튿날 주일학교 공과 내용이 학교 시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자료에서 복음 공과를 위한 보충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 대회



TOPICS IN THIS ISSUE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36	37-39
40-42	43-45
46-48	49-51
52-54	55-57
58-60	61-63
64-66	67-69
70-72	73-75
76-78	79-81
82-84	85-87
88-90	91-93
94-96	97-99
100-102	103-105
106-108	109-111
112-114	115-117
118-120	121-123
124-126	127-129
130-132	133-135
136-138	139-141
142-144	145-147
148-150	151-153
154-156	157-159
160-162	163-165
166-168	169-171
172-174	175-177
178-180	181-183
184-186	187-189
190-192	193-195
196-198	199-201
202-204	205-207
208-210	211-213
214-216	217-219
220-222	223-225
226-228	229-231
232-234	235-237
238-240	241-243
244-246	247-249
250-252	253-255
256-258	259-261
262-264	265-267
268-270	271-273
274-276	277-279
280-282	283-285
286-288	289-291
292-294	295-297
298-300	301-303
304-306	307-309
310-312	313-315
316-318	319-321
322-324	325-327
328-330	331-333
334-336	337-339
340-342	343-345
346-348	349-351
352-354	355-357
358-360	361-363
364-366	367-369
370-372	373-375
376-378	379-381
382-384	385-387
388-390	391-393
394-396	397-399
400-402	403-405
406-408	409-411
412-414	415-417
418-420	421-423
424-426	427-429
430-432	433-435
436-438	439-441
442-444	445-447
448-450	451-453
454-456	457-459
460-462	463-465
466-468	469-471
472-474	475-477
478-480	481-483
484-486	487-489
490-492	493-495
496-498	499-501
502-504	505-507
508-510	511-513
514-516	517-519
520-522	523-525
526-528	529-531
532-534	535-537
538-540	541-543
544-546	547-549
550-552	553-555
556-558	559-561
562-564	565-567
568-570	571-573
574-576	577-579
580-582	583-585
586-588	589-591
592-594	595-597
598-600	601-603
604-606	607-609
610-612	613-615
616-618	619-621
622-624	625-627
628-630	631-633
634-636	637-639
640-642	643-645
646-648	649-651
652-654	655-657
658-660	661-663
664-666	667-669
670-672	673-675
676-678	679-681
682-684	685-687
688-690	691-693
694-696	697-699
700-702	703-705
706-708	709-711
712-714	715-717
718-720	721-723
724-726	727-729
730-732	733-735
736-738	739-741
742-744	745-747
748-750	751-753
754-756	757-759
760-762	763-765
766-768	769-771
772-774	775-777
778-780	781-783
784-786	787-789
790-792	793-795
796-798	799-801
802-804	805-807
808-810	811-813
814-816	817-819
820-822	823-825
826-828	829-831
832-834	835-837
838-840	841-843
844-846	847-849
850-852	853-855
856-858	859-861
862-864	865-867
868-870	871-873
874-876	877-879
880-882	883-885
886-888	889-891
892-894	895-897
898-900	901-903
904-906	907-909
910-912	913-915
916-918	919-921
922-924	925-927
928-930	931-933
934-936	937-939
940-942	943-945
946-948	949-951
952-954	955-957
958-960	961-963
964-966	967-969
970-972	973-975
976-978	979-981
982-984	985-987
988-990	991-993
994-996	997-999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 프조를 취함



어느 샌드위치 가게로 인도되어

크리스 엘 쿠퍼

몇년 전 우리는 유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미국 동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우리 밴(승합차)이 미주리 어디에선가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고, 테네시로 들어서자 그 증상은 더 심해졌다. 마침내 그날 밤 늦게 차타누가를 떠나는 언덕길을 올라가는 도중 엔진이 멈춰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지금이 우리 온 가족이 한데 뭉쳐 신앙의 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 네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도록 권고했다.

기도가 끝난 직후, 밴은 시동이 걸렸고 우리는 계속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러나

1마일도 채 못 가서 다시 털털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 묵을 모텔 방을 찾을 생각을 하며 첫번째 도로 출구로 나갔다. 그러나 네 곳의 모텔을 가 보았으나 빈 방이 없었다.

우리는 고속도로로 돌아왔고 곧 모텔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한 도로 출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 출구로 나가라고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출구로 나갔지만 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샌드위치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가족에게 다가갔다.

“자동차 정비공이세요?”라고 물었다.

그 출구는 4차선 고속도로로 이어졌고 우리는 금방 정지 신호에 도달했다. 나는 곤경에 빠진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내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길 옆의 한 샌드위치 가게를 가리켰고 그곳에 들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 주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 가게 앞에 차를 세워 제일 큰아이에게 돈을 줌으로써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도록 한 후 아내와 함께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는 지쳐 있었다. 우리는 그날 새벽 5시부터 여행을 했고 이제 거의 저녁 9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왜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복음대로 살려는 모든 노력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기 시작하다가 불현듯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올려다 보았더니 그 샌드위치 가게의 바깥쪽 전등이 켜 있지 않았다. “이





가게를 어떻게 발견했어?”라고 아내에게 물었다. “고속도로에 표지판이 나와 있었어?” 아내는 아니라고 했고, 갑자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돌려 보니 그곳에 가게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빠른 속도로 생각하며 금방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우리의 부름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 느낌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었다. 비로소 나는 우리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알게 되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 안쪽을 들여다보았더니 첫번째 테이블에 한 젊은 가족이 앉아 있었다. 나는 승용차 좌석에 앉은 채로 그 가족의 아버지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차 밖으로 나와서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가족에게 다가갔다. “자동차 정비공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놀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해 설명했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내 차도 지난 주에 그랬잖아?” 하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 차가 그 날 밤 아틀랜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차를 고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신앙에 찬 기도는 정말 이루어지지만,

나 는 공과 시간 동안 경전을 무릎 위에

펼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

종종 그 해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 도와 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는 그 날 밤 깨달았다. ■

크리스 엘 쿠퍼는 잘츠턴 사우스 캐롤라이나 스테이크 찰스턴 제1와드의 회원이다.

걱정이 되었다. 나는 35세의 나이에 다시 학교 공부를 시작했기에 종종 개념들을 기억하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시험은 월요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성찬식 모임만 참석하기로 거의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게 될지 염려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 모임에 갔다.

복음 교리반은 읍기에 대한 것이었으며, 복음 교리반 교사인 클레이튼 스미스 형제는 표현이 풍부하고 겸손한 교사로서 강렬한 영적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공과 시간 동안 경전을 무릎 위에

나는 주일학교를 선택했다

헬렌 워커 존스

나 는 영어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전체 교과 과정을 망라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읽어야 할 긴 도서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다. 시험 준비가 충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펼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

다음날 나는 시험을 치를 강의실에 도착했고 시험 감독관은 시험지를 나눠 주었다. 시험은 세 개의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세 시간 동안 작성해야 했다. 그 중,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글들 중 최소한 세 가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난의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 중 읊기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문제에 얼마나 쉽게 답을 썼는지 정말 놀랄 지경이었고, 내 답안의 핵심은 그 전날 주일학교 시간에 읽었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나는 그 문제에 아주 쉽게 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문제를 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나는 “특별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또한 스미스 형제의 공과 시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읊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더 깊이 있고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이해력을 갖고 답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몇 주 후 시험 결과가 게시되었을 때, 나는 내가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주일학교 공과였으며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모임에 빠지지 않는 개념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그 일요일 아침에 베퉀 공부하는 대신 복음 교리반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헬렌 워커 존스는 솔트레이크 엔사인 스테이크 제1엔사인 와드의 회원이다.

당신의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리우 쿠안 핑

1986년 어느 상쾌한 여름날 아침, 아내인 시우 친이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아내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 주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한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은 7마일(약 1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그 느낌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일 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신의 음성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다. 시우 친이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조금 전과 같은 느낌이 또 들었고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욱 강하게 내가 그녀를 태워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무시해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10분 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너무 두려워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려퍼졌다. 마침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신의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즉시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고의 목소리가 생각났고, 나는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했다.

시우 친은 위독한 상태였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내는 임신 9개월이었다. 한 의사는 더 나은 장비를 갖고 있는 카오시옹의 큰 병원으로 아내를 이송시키라고 권유했다.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나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아내를 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병원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고 아내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애원했다.

한 시간 이십 분 후에 우리는 그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CT촬영을 지시했고 CT영상을 보고 나서 시우 친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원에 빈 병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 날 저녁 6시, 나는 옛 학교 친구의 누이를 만났다. 그녀는 그 병원의 직원이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9층에 있는 빈 병실을 구할 수 있었다. 시우 친은 여전히 의식 불명이었고 위독한 상태였다.

밤 10시에 나는 아내가 병자 축복을 받도록 선교사들에게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지부의 선교사들은 카오시옹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했고 20분 후 그들이 도착했다. 그러나 의사는 아내가 여전히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내의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장로들에게 아내 대신 나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회의실에서 내게 축복을 주었다.

밤 11시가 되었지만 아내는 아직도 분만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은 아내를 8층으로 옮겨 제왕 절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내를 옮긴 지 10분 후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분만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간호사가 나에게 아기를 건네주었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기의 모습은 매일 밤 내가 기도 속에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았다.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시우 친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아내는

정신이 맑지 않았고 두통을 호소했다. 아내의 담당 의사는 아내를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 뇌 수술을 받게 하자고 권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곰곰이 생각해 본 지 3분도 안 되어, 다른 병원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사에게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아내를 그 병원에 입원시켰다. 마침 예외적인 환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만 전역을 순회하는 한 의료진이 이 병원을 방문 중이었다. 미국에서 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 뇌 전문 외과 의사가 그날 그 의료진과 함께 있었다.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나서 이 의사는 아내의 수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상태가 일주일 내에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크게 안심되었다.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 의사가 예측한 대로, 시우 친은 일주일 후에 상태가 호전되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는지 의사마저도 놀랄 지경이었다. 그 의사의 의료 기술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아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분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

리우 쿠안 팽은 타이완 카오시웅 스테이크 치산 지부의 회원이다.

아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내는 정신이 맑지 못했고 두통을 호소했다. 아내의 담당 의사는 뇌 수술을 권했다.



침례로 인도하는 리아호나

제가 교회를 잘 알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은 리아호나를 통해서입니다. 1997년, 제가 열한 살이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리아호나 잡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제 관심을 끌었고 어린이란의 기사와 게임들 또한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수년 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울라 에프 피 다 실베이라, 알레그레테 브라질 스테이크 아이비라푸이타 와드

단합을 촉진하는 잡지

우리는 2005년 2월호에 실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제일회장단 메시지,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을 읽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면서 이 기사를 주의 깊게 공부했으며 우리 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 가정의 단합을 촉진시키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 줍니다.

저스틴 및 크리스틴 무쿠나, 콩고 민주 공화국 루뭉바쉬 스테이크 카투바 제2와드

무한한 감사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하며 종종 비회원인 친구들에게 그 기사를 전합니다. 저는 또한 물몬경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알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주님의 충실한 종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 제가 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르타 알 가리가,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시에라스 스테이크 카를로스 파즈 와드



회원들을 위한 도움

저는 교회 회원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리아호나의 아름다운 기사에 대해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04년 9월호에서 에바 프라이가 쓴 “사슬의 고리”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와드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이 기사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더 에레라 장로, 멕시코 멕시코 시티 북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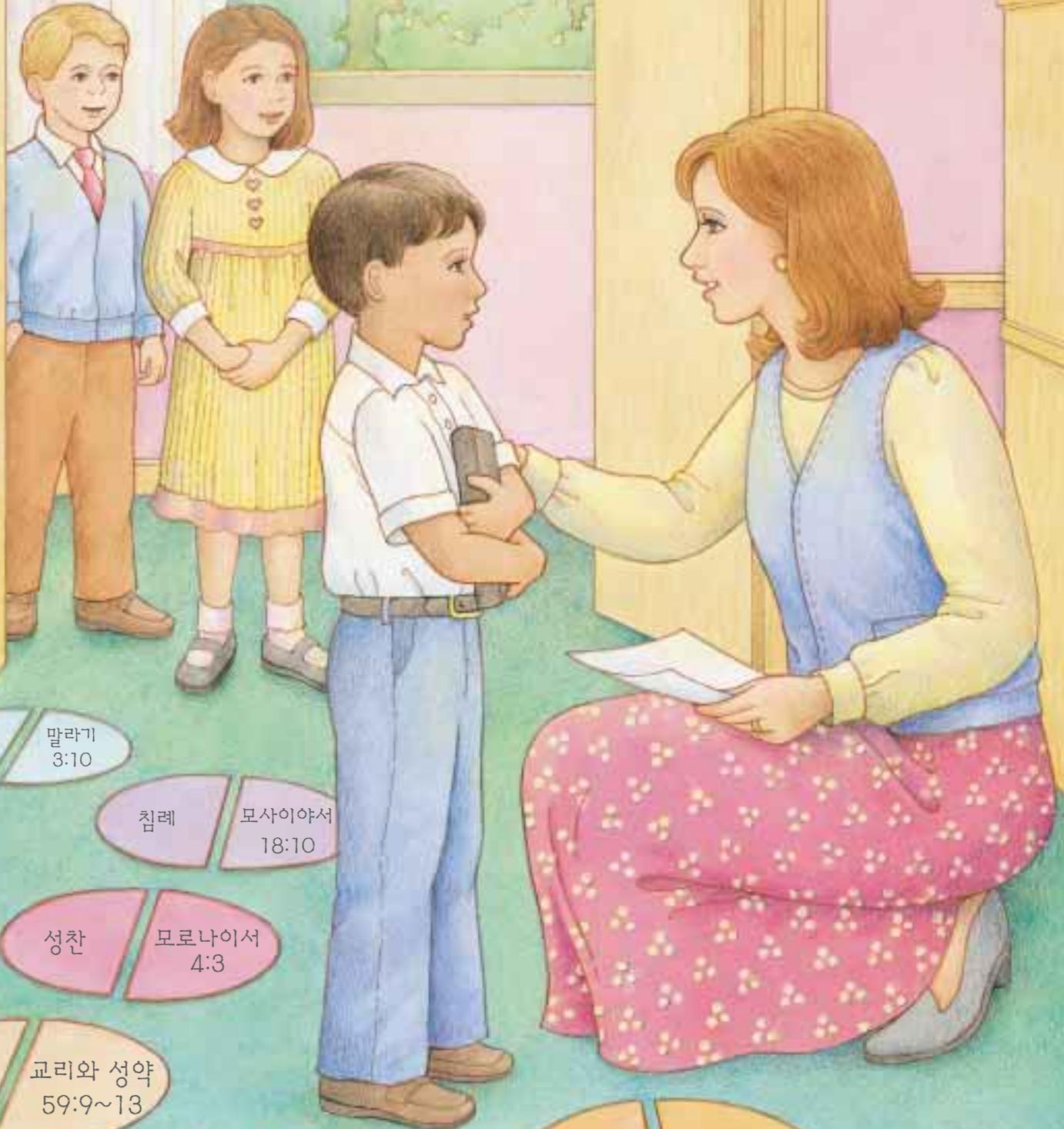
회복을 위한 준비

역사 교사로서 저는 2005년 3월호에 실린 기사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를 읽어 주신 것에 대해 리아호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특별한 상황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셨는지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보여 주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의 참됨에 대한 저의 간증을 키워 주었습니다.

마르셀로 올린토 수아레스 데 모우라, 레시페 브라질 자르딤 상파울루 스테이크 카바레이로 와드



친구들



십일조 말라기 3:10

침례 모사이아서 18:10

성찬 모로나이서 4:3

안식일 교리와 성약 59:9~13

지혜의 말씀 교리와 성약 89:5~21

성전 결혼 교리와 성약 131:2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주님의 등대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 즉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아무리 작거나 큰 것이라 해도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작은 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결정의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모사이아서 4:10)고 하신 베냐민 왕의 권고를 항상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십시오.

노력하고 성취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 생에서 저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때로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낙담할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견뎠고, 그런 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등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등대를 소용없게 만들 만한 자욱한 안개도, 어두운 밤도 없으며, 길 잃은 선원도 없고, 세찬 강풍도 없습니다. 주님의 등대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것은 “이 길이 안전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의 빛을 보기 원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느끼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기 원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는 성구가 주는 지시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

2003년 9월 7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행한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 연설에서.



나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1서 2:25)

린다 매글비



열 살인 카를로스는 달리고, 점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카를로스를 사랑했습니다. 선생님은 카를로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네가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너는 자라서 언젠가는 신권 소유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될 텐데, 그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야.” 카를로스는 선생님께서 단지 자신을 경건히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귀기울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한 카를로스는 신권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귀기울여 배웠던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 때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 주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포스터: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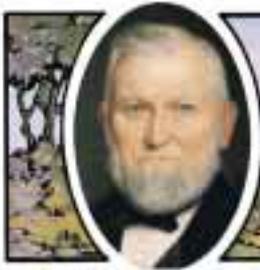
친4쪽에 있는 포스터에 색칠한 다음,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곳에 그것을 걸어 둔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껴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kr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안

1. 복음 그림 패킷 239(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교 교실 앞에 붙여 둔다. 큰 종이 원 여섯 개를 준비한다. 각 원을 반으로 자른다. 여섯 개의 반원에 성약십일조, 침례, 성찬, 안식일, 지혜의 말씀, 성전 결혼을 한 가지씩 적는다. 다른 여섯 개의 반원에는 각각 성약을 지키는 방법(말라기 3:10; 모사야서 18:10; 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59:9~13; 교리와 성약 89:5~21; 교리와 성약 131:2)을 말해 주는 성구를 하나씩 적는다. 칠판이나 게시판의 세로로 된 두 칸에 반원들을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차례로 성구 하나를 보며 소리내어 읽게 한 다음 그룹에게 그 성구와 일치되는 성약을 찾아보라고 한다. 한 어린이를 택해서 지상에 올 때의 우리 모두를 대표하게 한다. 그 어린이를 초등학교 교실 뒤쪽에 서 있게 한다. 짝 맞추기가 끝나면 두 반원들을 모두 연결하여 교실 바닥에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어린이에게 걷게 한다. 그 길은 구세주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면 각 성약을 보강해 주는 노래를 부른다.

2. 와드나 지부에서 서너 명의 성인 회원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에 도움을 주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다. 그들에게 나의 복음 표준을 복사하여 각각 나누어 주고 표준대로 생활할 때 축복 받은 것을 보여 주는,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려고 계획하는 표준들을 메모해 둔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나의 복음 표준을 복사하여 걸어 둔다. 선택된 표준에 음악적 힌트를 주는 노래나 찬송가들을 골라서 어린이들이 알맞은 복음 표준을 알아맞힐 때까지 음악을 통해 힌트를 준다.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어린이에게 그 복음 표준을 읽게 한다. 성인 회원 한 명에게 그 표준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삶이 축복 받았는가에 대해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가끔씩 어린이들에게 음악 힌트를 주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게임을 계속한다. 나의 복음 표준을 실천할 때 올 수 있는 행복에 대해 간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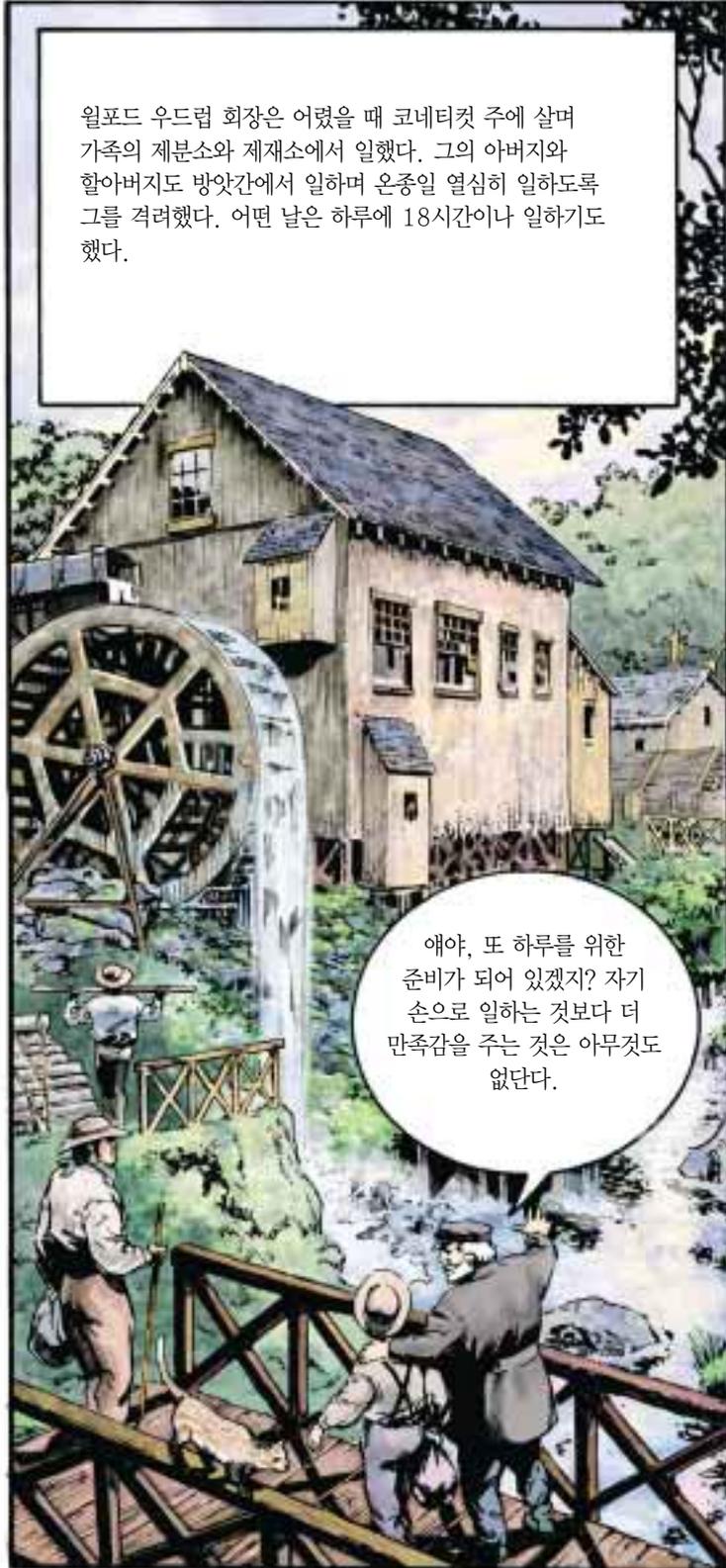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낚시와 기도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어렸을 때 코네티컷 주에 살며 가족의 제분소와 제재소에서 일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방앗간에서 일하며 온종일 열심히 일하도록 그를 격려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8시간이나 일하기도 했다.

일이 끝나면 윌포드는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쉬는 것을 좋아했다. 때때로 그는 형 애즈몬과 함께 낚시를 가곤 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낚시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애야, 또 하루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겠지?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어느 날, 일을 마친 윌포드는 낚시하던 개천 한 가운데 있는 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섬은 야생화로 뒤덮여 있었다. 윌포드는 야생화들 가운데 누워 구름을 바라보곤 했다.



난 여기가 정말 좋아. 떠들썩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 있는 건 좋은 일이야.

이런 조용한 순간에 월포드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생각했다. 그는 매일 읽는 경전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곤 했다.

여러 다른 교회들도 많고 종교들도 많지만, 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월포드는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일들, 즉 낚시와 기도를 계속했다. 브리검 영과 함께 평원을 횡단하는 동안에도 월포드는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낚시를 했다.

이러한 기도는 월포드를 매우 성실한 사람이자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모범을 보고 그에게 "성실한 월포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월포드 형제님, 형제님은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낚시하면서 명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끔씩은 저녁 거리도 얻지요!



수전 애링턴 매드슨, The Lord Needed a Prophet(1990), 61~62, 71쪽에서 발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패트 그레이엄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잠시 동안 하늘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계획을 알려 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 소리질렀어요.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좋아했고 지상에 와서 사는 데 찬성했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자녀들은 남미에 살기 위해 왔어요. 그 밖의 다른 자녀들은 지상의 여러 다른 곳으로 왔답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떤 피부 색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음 활동을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회 말씀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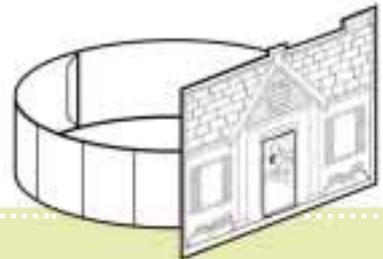
친9쪽에 있는 집을 여러분의 집과 같은 색으로 칠한다. 집을 오려서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문 양쪽의 점선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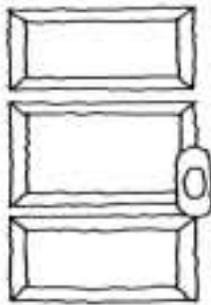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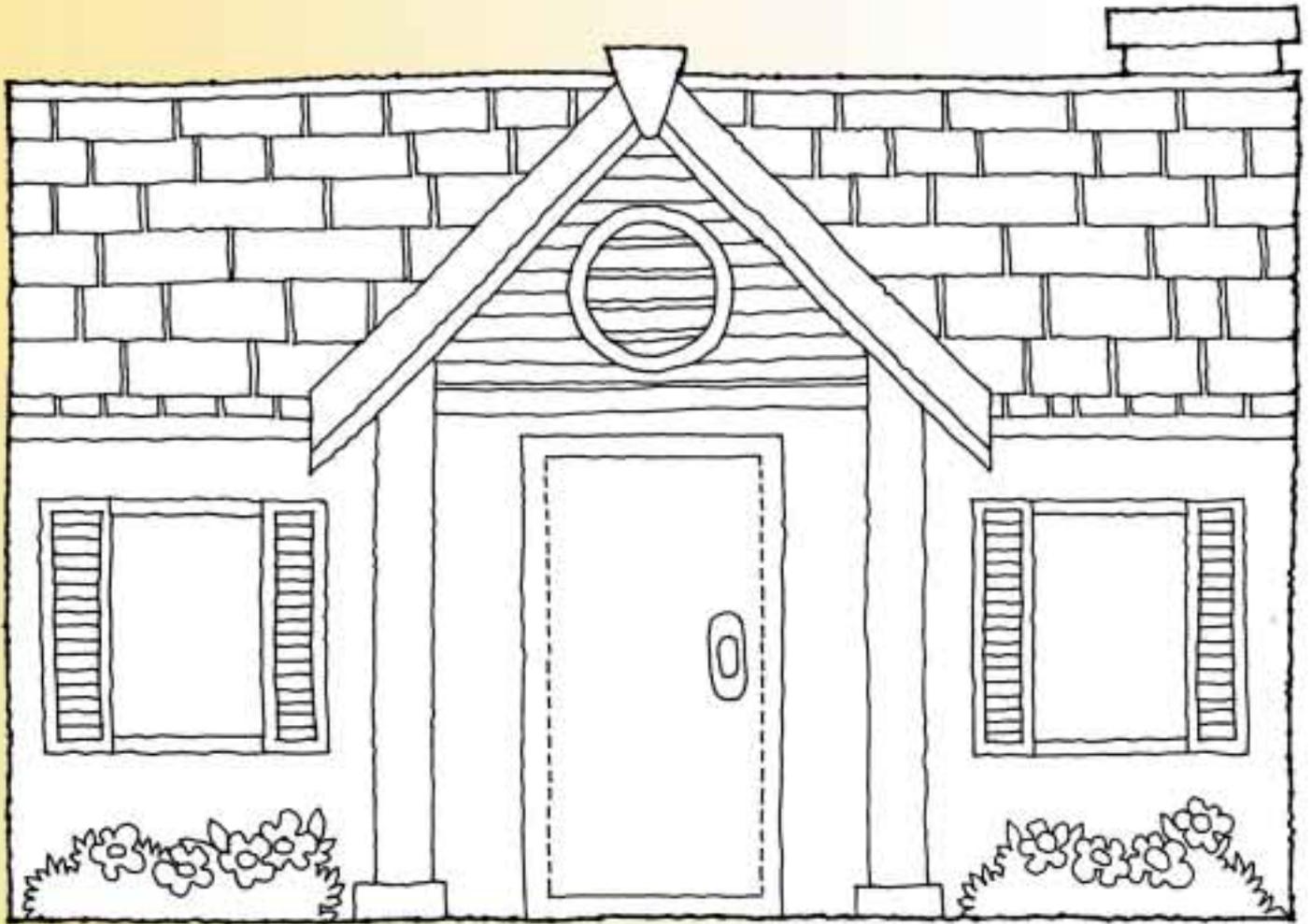
가늘고 긴 틈새를 오려낸다. 두 그림 스트립을 색칠한다. 탭1 부분을 그림 스트립에 풀로 붙여 한 개의 긴 스트립으로 만든다. 그림 스트립의 한쪽 끝을 문 양쪽에 난 틈새 사이로 통과시킨다. 탭2 부분을 그림 스트립의 다른 쪽 끝에 붙인다.(삽화 참조)

문 그림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림 스트립을 배치한다. 문에 인쇄되어 있는 두 문장을 읽는다. 다음 그림을 보여 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 찬송가 187장)의 가사를 노래한 다음, 문장을 읽는다. 그림들을 다 보여 주고 노래를 부르고 문장들을 모두 읽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배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삽화





여러분의 지상의 집도 이렇게
생겼나요?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네요.



노래: "난 하나님의 자녀"
낭독: 이 어린이들은 멕시코에
삽니다.



노래: "날 세상에 보내"
낭독: 하나님의 자녀들 중 일부는
통가에 삽니다.



노래: "부모와 함께 살도록"
낭독: 여기 일본에 사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노래: "가정을 주셨네"
낭독: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친절하기를
바라삽니다.

행 1



노래: "길을"
낭독: 형과 누나는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노래: "찾아 가게"
낭독: 어머니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노래: "저를 도와 주소서"
낭독: 아버지는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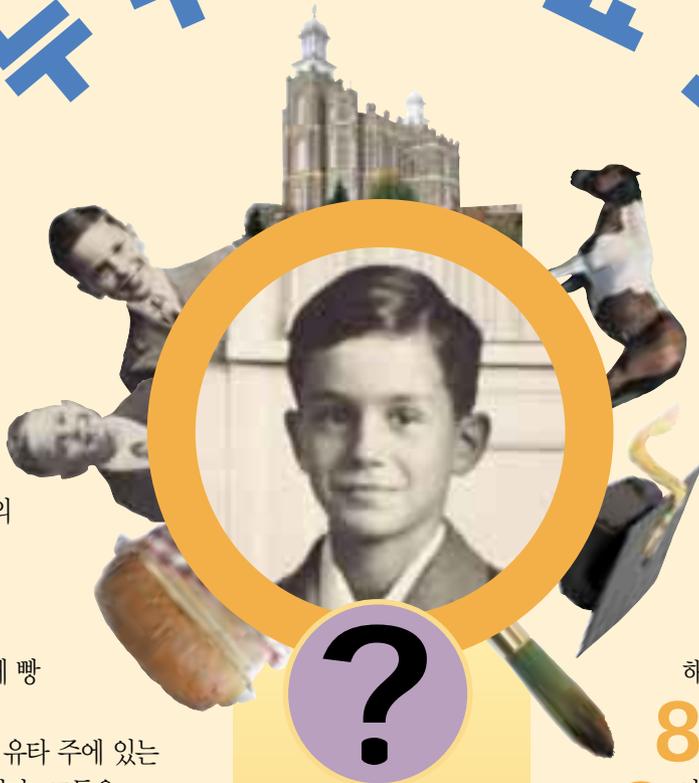
노래: "주와 함께 살도록"
낭독: 경전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노래: "가르쳐 주소서."
낭독: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행 2

누구일까요?



1 이분은 형과 남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할 때 그들 지부의 후기 성도 청소년은 그들뿐이었습니다.

2 이분은 바쁜 총관리 역원이지만 가족과 함께 빵 굽기를 즐깁니다.

3 성장할 때 그의 가족은 유타 주에 있는 외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과수원에 있는 사과 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으며, 이분과 그의 사촌은 근처에 있는 운하에 수영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4 이분이 다니던 교회는 이분이 성장한 뉴저지 주의 조그만 지부로 한 호텔 방에서 모임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5 이분은 2004년 10월에 두 명의 새로운 사도가 지지 받을 때까지 9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사도 서열 열두 번째였습니다.

6 애리조나 주의 조부모님 댁에서 이분은 가족과 함께 말을 타곤 했으며, 할아버지께선 그들의 승마 경주를 보시길 좋아하셨습니다.

7 이분은 교회 해돋이 모임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분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해 여름인 1962년 7월에 이분은 로간 유타 성전에서 캐슬린과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회장이 되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님이 인봉을 해주셨습니다.

8 이분은 수채화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9 이분은 물리학에서 한 개, 경영학에서 두 개, 모두 세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이분은 렉스버그에 있는 리스 대학(현재는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5년 동안 총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이분에 대한 힌트를 읽은 다음, 아래에 있는 답을 찾는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된다. 그들은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행하고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울 수 없는 진리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o What They Think You Can’t Do”, New Era, 1989년 10월호, 6쪽)

행복을 주는 책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나?”(찬송가, 182장)

로라 런디

실화

“과 학 경시 대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마!”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셀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라고 모건이 물었다.

“방금 내가 묻지 말라고 한 말 못 들었어?” 미셀이 쏘아붙였다. 미셀은 동생을 스쳐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셀의 방문이 닫혔다.

모건은 미셀이 왜 화가 났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미셀이 과학 경시 대회에서 자신의 소라게 프로젝트가 상을 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마도 상을 못 탄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래도 왜 나랑 말하지 않을까요?” 모건이 물었다.

“아마 나중에 말할 거야.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야 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였다.

“하지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언제나처럼 언니와 놀고 싶어요.”

엄마는 “언니가 지금 당장은

놀고 싶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색칠이나 인형 놀이를 하거라.”라고 말씀하였다.

모건은 자기 방으로 가서 종지와 크레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색칠을 한 다음 멈추더니 별떡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 갔다

“저녁 먹으려면 얼마나 더 있으면 되죠?” 모건이 물었다.

“한 45분 정도면 돼.”

“그럼 언니에게 행복을 주는 책을 만들어 줄 시간이 되겠네요? 저녁 먹기 전에 끝내고 싶어요.”라고 모건이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를 보며 모건은 방으로 되돌아가서 문을



닫았다.

“미셀! 모건! 식사 시간이야!” 잠시 후 엄마가 부르셨다.

모건은 서둘러 방을 나와 식탁의 미셀 자리로 달려갔다. 모건은 미셀의 접시에 종이 몇 장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는 자기 의자에 가서 앉았다.

식탁에 온 미셀이 종이를 가리키며 언짢다는 듯, “이게 뭐야?”



하고 물었다.

“그건 행복을 주는 책이야.” 모건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미셀은 종이를 집어 돌려서 첫번째 것을 살펴보았다.

“그거 트로피 그림이야. 왜냐하면 난 언니의 소라게가 제일 좋으니까. 그 다음 것은 슬픈 얼굴 그림이야.”라고 모건이 말했다.

“왜?” 하고 미셀이 물었다.

“왜냐하면 언니가 화가 나서 내게 말도 안 하고 놀아 주지도 않으면 난 슬퍼지거든.”

미셀은 다음 그림으로 넘겼다. “이건

하트야, 맞지?”

“응, 하트는 내가 언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모건이 말했다.

미셀은 마지막 그림을 본 다음, 동생을 보았다.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와 언니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그림이야. 내 책이 언니를 행복하게 해 줬어?”

모건은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주 행복해. 학교에서 집에 올 때 화내서 미안해. 네게 화를 낸 게

아니야. 내 프로젝트가 아무 상도 못 받았어. 상을 탈 줄 알았거든.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 미셀이 말했다.

“괜찮아. 그래도 난 언니를 사랑해.” 모건이 말했다.

“나도 사랑해, 모건. 저녁 먹고 게임 할래?” 미셀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모건이 신이 나서 말했다.



내 친구 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하이디 르누프 브리스코

실화에 근거함



사 람들이 큰 언덕을 걸어 올라 우리 집으로 오는 건 드문 일이었다.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그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오기 위해 휘발유를 낭비하려 하지 않았고, 신문 배달 소년도 자전거를 타고 그곳까지 신문을 돌리길 거절했으며 우리집 개조차 집에 되돌아오려면 언덕을 달려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절대 멀리 달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린다는 소금과 후추같이 검고 흰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나이들고 체격 좋은 여성이었다. 우리 이웃 사람들 몇몇은 그녀가 장애인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린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린다는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소녀였다. 린다는 방문할 때마다 우리를 힘껏 안으며 뺨에 입맞춰 인사하곤 했다. 우리는 그녀가 주위에 있으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린다가 쾌활하게 언덕을 올라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결코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오자마자 “린다가 왔어요!”라고 말했다. 오늘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로이 오빠를 붙들고 방을 돌며 춤을 추었다. “내가 눈송이 무도회에 초대 받았어! 린다가 눈송이 무도회에 초대 받았단 말야!”

눈송이 무도회는 린다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댄스 파티였다. 그녀는 치장할 것에 정신이 팔려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난 크고 빨간, 솜털같이 부드럽고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싶어. 그리고 머리에 반짝이를

붙이고, 반짝거리는 빨간 구두를 신고 싶어. 머리엔 장미도 달고 싶어. 케이티, 빨간색 좋아해?”라고 말했다.

“빨간색도 좋지만 난 분홍색이 제일 좋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난 빨간색이 제일 좋아. 항상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입은 멋진 숙녀가 되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린다가 꿈꾸는 드레스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다. 우리는 할인점에서 빨간 구두를 사서 반짝이를 붙였다. 린다는 드레스를 입어보고 구두를 신어 보고 다시 벗어야 할 때마다 울었다. 그녀는 내면의 아름다움만큼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는 걸 좋아했다.

마침내 무도회 날이 되었다. 그 날은 학교에 가는 날이었지만 나는 린다의 성대한 파티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다. 점심 시간에 난 친구들과 밖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케이티, 케이티! 내 단짝 친구, 케이티! 날 좀 봐! 나 정말 예뻐! 케이티, 예쁘고 솜털같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내 행복한 드레스를 좀 봐! 케이티, 네 친구 린다를 좀 봐! 난 멋진 숙녀야. 린다가 바로 여기 있어. 케이티, 좀 봐!”

난 린다가 길 건너편에서 온통 멋지게 차려입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도 손을 흔들 뻔하다가 친구들의 얼굴을 보았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너, 저 이상한 여자 알아?” 나탈리가 물었다. “우리 온 동네를 안 다니는 데가 없어. 우리 엄마는 저 여자가 정신 이상이래.”

난 대답을 우물거렸다.

그러자 켈리가 거들었다. “우리 동네도 다니는 걸 봤어. 저



펼쳐나온 드레스 좀 봐! 너무 우스꽝스럽잖아!” 친구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다.

나탈리는 비웃으며 다시 물었다. “너, 저 정신 나간 여자 알지? 저 여자가 네 단짝 친구라도 되니? 어떻게 네 이름을 알아?”

길 건너편에서 린다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소리치는 것은 멈추었다. 난 린다가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음, 저 여자가 우리 집 옆을 걸어오다가 우리 엄마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을 알았다고 생각해. 물론 난 모르는 여자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켈리, 나탈리,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안심한 듯했고 계속해서 그녀를 놀리고 있었다. 나는 괴로웠다. 길 건너에 있는 린다를 볼 용기가 없었다. 도시락도 다 먹을 수가 없었으며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다. 난 뭔가 잘못했음을 알았다.

작년에 침례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제 성신은 내가 나의 약속을 깨뜨렸음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예수님은 린다를 사랑하시며 그녀를 결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길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친구들이 점심 먹은 것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잠깐! 나 저 여자와 친구 맞아, 이름은 린다이고 우리 가족과 친구야. 제발 그녀에게 심술궂게 굴지 마. 그녀는 특별해. 우린 그녀를 사랑해.” 몇몇 아이들은 웃음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자기들도 린다와 같은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린다는 길 모퉁이에 앉아 자신의 반짝거리는 구두를 슬프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소리치며 팔을 흔들 차례였다. “린다, 린다, 내 단짝 친구 린다, 날 봐요! 린다, 너무 예뻐요! 린다는 아주 멋진 숙녀예요! 린다, 예쁘고 솜털같은, 반짝거리는 행복한 드레스를 봐요! 린다, 친구 케이티를 봐요. 케이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린다!”

린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팔을 흔들었다. 내가 팔을 흔들고 소리치면 칠수록 그녀도 팔을 흔들며 웃었다. 곧 그녀와 나는 위아래로 뛰고 손을 흔들며 서로에게 키스를 보내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들은 린다가 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린다는 무도회에서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정말 세련된 숙녀같이 보였다. 어머니와 나는 린다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무도회에서 음료수 서빙하는 일을 자원했다.

무도회가 끝난 후, 린다와 나는 우리 집으로 오는 그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왔다. 나는 린다에게 늦게서야 팔을 흔들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친구를 가진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했다. 나의 단짝 친구와 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집까지 걸으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

하이디 르누프 브리스코는 로스 알토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우드랜드 파크 와드 회원이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을 더듬을 수 있으나, 감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 그들은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61쪽.



1월



2월



3월



4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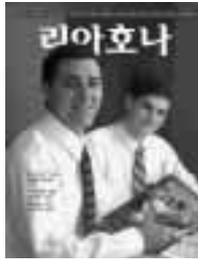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리아호나 2005년 색인

이 색인에는 저자 항목, 주제 항목, 그리고 제목 항목(이탤릭체)이 담겨 있다.

친=친구들 란

연차 대회 출판 일정으로 인해, 2005년 색인이 2006년에 실리게 되었다. 이 색인을 2005년 12월호에 삽입해 둘 수도 있다. 2005년에 리아호나는 49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월간 발행은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로, 1년에 6번(1, 4, 5, 7, 10, 11월)은 세부어, 인도네시아어 및 헝가리어로, 1년에 4번(4, 5, 10, 11월)은 루마니아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타히티어, 폴란드어 및 피지어로, 1년에 4번(1, 4, 7, 10월)은 몽골어, 아이티어, 캄보디아어 및 키리바시어, 타밀어 및 텔루구어로, 1년에 2번(4, 10월)은 말라가시어, 아르메니아어(동부),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및 신할리어로, 1년에 1번(4월)은 그리스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크로아티아어, 헝가리어로, 1년에 1번(10월)은 우르두어로 발행되었다.

가

가드너, 마빈 케이

-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1월호, 32
- 지구의 중심에서, 6월호, 26
-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3월호, 34
- 한스 니에토 에파도르, 과야킬, 8월호, 친14

가르침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차드 지 스크트, 5월호, 29
-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멘러브, 5월호, 13
- 선생님을 가르침, 프린스 아이헨코로, 2월호, 26
-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문슨, 11월호, 67
-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2
- 인내심,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51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엠 러셀 벨라드, 11월호, 41

가정 복음 교육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10월호, 34

스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케빈 프로파스코, 1월호, 40

신권회의의 한 교사, 파멜라 리드, 2월호, 46

효율적인 장로 정원회, 테일 이 밀러, 4월호, 30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달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가정의 밤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토마스 에스 문슨, 5월호, 19

선교 도구가 되는 가정의 밤, 6월호, 34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하여, 아담 시 울슨, 9월호, 32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로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특별한 월요일, 오레야마 오히와부클라, 3월호, 47

가족 (또한 어린이, 결혼, 모성, 부모의 역할, 가족 강화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엠 러셀 벨라드, 11월호, 41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달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가족은 영원해, 마가렛 리퍼스, 4월호, 친4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문슨, 9월호, 2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1월호, 38

부모님의 신앙, 1월호, 친6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10월호, 25
장미 정원, 패트 웨인, 4월호, 친14

가족 강화

가족 생활의 행복, 9월호, 36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8월호, 8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1월호, 30
동등한 동반자로서, 10월호, 8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십시오, 4월호, 34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7월호, 32
상황에 맞게 조절함, 12월호, 30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2월호, 34
출산의 신성한 힘, 6월호, 38

가족 생활의 행복

9월호, 36

가족 역사 (또한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599번의 침례, 윌슨 아르레이 오캄포, 8월호, 16
가족 역사 두루마리, 마가렛 쇼어스, 4월호, 친9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카를로스 에이
페레스, 8월호, 10
이렇게 기록을 찾았습니디!, 8월호, 12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친2
조셉 스미스 가족 나무, 12월호, 20

가족 역사 두루마리

마가렛 쇼어스, 4월호, 친9

가족은 영원해

마가렛 리퍼스, 4월호, 친4

간, 대릴 에이치

담장 뛰어넘기, 6월호, 친8

간증 (또한 개종, 신앙 참조)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
간증을 얻은 새벽, 몬트 제이 브러프, 9월호, 친14
간증을 함, 제이 이 젠슨, 10월호, 10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3월호,
2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멘러브, 5월호, 13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12
물문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11월호, 33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8월호, 7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5월호, 10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마가렛 리퍼스,
3월호, 친4
요셉 스미스로부터 배우는 것, 4월호, 15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12월호, 22
첫번째 시험의 결실,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5월호, 36

간증을 얻은 새벽

몬트 제이 브러프, 9월호, 친14

간증을 함

제이 이 젠슨, 10월호, 10

감리 감독단

키스 비 맥밀런, 7월호, 34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11월호, 107

감사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가렛 리퍼스,
12월호, 친4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

개인의 가치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태너,
5월호, 104
육신, 성스러운 선물, 다이앤 엘 스펜글러, 7월호,
16
인간의 가치, 해롤드 지 힐렘, 5월호, 32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호, 22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디시 랜들 오브슨, 9월호, 16

개종 (또한 침례, 신앙, 선교 사업, 간증 참조)

개종, 바츨라바 스보보도바, 10월호, 31
계시의 영, 엠 곤잘로 세폴베다, 2월호, 42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튼, 5월호, 91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주디스 에이 디너, 4월호,
36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톰 페리, 5월호, 84
신앙으로 지은 집, 호세 루이스 다 실바, 4월호, 38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11월호,
48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

개종

바츨라바 스보보도바, 10월호, 31

개혁자 (또한 교회 역사 참조)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혁자들, 헨리와 제널 콜,
7월호, 38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2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4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

기록하신 주님의 빛

수잔 더블류 태너, 3월호, 친6

기록한 곳에 섬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62

견디어 냄 (또한 역경, 순증 참조)

결승점, 9월호, 31
인내심,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51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2

결승점

9월호, 31

결혼 (또한 성약, 가족,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8월호,
40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8월호, 8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 3월호, 친8
동등한 동반자로서, 10월호, 8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7월호, 32
잃었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1월호, 26
출산의 신성한 힘, 6월호, 38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8월호, 40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8월호, 8

경전 공부 (또한 물문경, 교리와 성약 참조)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7월호, 8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9월호, 친16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웨일 시 렌트,
11월호, 7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헨리 비 아이어링, 3월호, 14
성탄절기에 읽을 거리 12 가지, 12월호, 7
세미나리 성구의 힘, 9월호, 21
어떻게 하면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6월호, 22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한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11월호,
48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7월호, 8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9월호, 친16

계명 (순증 참조)

계시 (또한 성신, 영감, 선지자 참조)

계시의 영, 엠 곤잘로 세폴베다, 2월호, 42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시온의 언덕 위에,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70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11월호,
48
제일회장단 정원회,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36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0

게시의 영

엠 곤잘로 세풀베다, 2월호, 42

고, 원용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11월호, 92

고전적인 말씀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리, 2월호, 친11

곶트, 러렌 포터

형제애의 불, 6월호, 43

골든, 크리스토펬 이세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2월호, 8

파테말라 꼬말라파의 하이로

달리아 호프과 비르나 로드리게스, 1월호, 친14

교리와 성약 (또한 교리와 성약이 주는 메시지 참조)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1-1~64편, 1월호, 1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2-65~137편, 8월호, 3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3-138편 및 공식 선언 1, 2, 9월호, 22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테프트 벤슨, 1월호, 8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1-1~64편

1월호, 1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2-65~137편

8월호, 34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3-138편 및 공식 선언 1, 2

9월호, 22

교리와 성약이 주는 메시지

게시의 영, 엠 곤잘로 세풀베다, 2월호, 42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카를로스 에이 페레스, 8월호, 10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10월호, 34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7월호, 28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마사유키 나가노, 6월호, 32

교사 정원회

2월호, 44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2월호, 친6

교회 역사 (또한 교리와 성약; 스미스, 조셉; 개혁자 참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2월호, 12

비디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11월호, 105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넬슨, 10월호, 26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새나 버틀러, 3월호, 20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3월호, 26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4월호 18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테너, 5월호, 104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

구애 (결혼, 도덕성 참조)

구원의 계획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1월호, 삽입

모두를 위한 모형, 메릴 제이 베이트먼, 11월호, 74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6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뻐함, 8월호, 25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가렛 리퍼스, 12월호, 친4

행복의 계획, 마가렛 리퍼스, 1월호, 친8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78

구유에 넣을 지푸라기

수 존슨, 12월호, 42

구조

툼 로울스톤, 3월호, 친14

권세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균형 잡힌 삶

브렌트 엘 탐, 4월호, 40

균형

균형 잡힌 삶, 브렌트 엘 탐, 4월호, 40

사랑하고 보살필 연속한 책임, 7월호, 32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아네스 로페스, 2월호, 39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존 하이로 몬토우야, 9월호, 39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그로우, 시 스코트

물문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11월호, 33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스 이 파우스트, 3월호, 2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1월호, 100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2월호, 12

그리스도의 빛

거룩하신 주님의 빛, 수잔 더블류 테너, 3월호, 친6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그리스도의 빛, 보이드 케이 패커, 4월호, 8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

그리스도의 빛

보이드 케이 패커, 4월호, 8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2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09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울슨과 로저 테리, 9월호, 10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8월호, 33

금식 헌금이 뭐예요?

김벌리 웹, 6월호, 친10

금식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더시 랜들

오브슨, 9월호, 16

금식 헌금이 뭐예요?, 김벌리 웹, 6월호, 친10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 9월호, 38

기도

1월호, 친4

기도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09

기도, 1월호, 친4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2월호, 친5

루 진을 위한 기도, 10월호, 친6

불빛, 보 피터슨, 1월호, 친10

야영지에서 구조됨, 마리아 에스피노사 알베알, 7월호, 26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 9월호, 38

우리에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엔 아 킨, 7월호, 43

응답된 기도, 제랄드 엔 런던, 7월호, 친8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2월호, 11

클럽 차우터 이야기, 개리 비 런던버그, 12월호, 44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너, 6월호, 친14

기쁨 (또한 행복 참조)

기쁨에 찬 절기: 제일회장단이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친2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1월호, 38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11월호, 92

기쁨에 찬 절기: 제일회장단이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친2

까비엘, 브랑제르

축복이 된 나의 기도, 2월호, 11

L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1월호, 38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6월호, 친4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티에리 호츠, 4월호, 37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해요

루시 사우트론, 12월호, 35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1월호, 삽입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가렛 리퍼스, 2월호, 친14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2월호, 친5

나는 항상 좋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10월호, 친4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오 플로레스, 8월호, 41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마가렛 리퍼스, 7월호, 친4

나의 복음 표준 서포

10월호, 친1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울슨과 로저 테리, 9월호, 10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5월호, 29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5월호, 29

나의 십일조 타이어

사라 웨스트브룩, 6월호, 44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아넷 말즐 낄, 9월호, 9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셰릴 시 램트, 11월호, 76

나이지리아 성탄절

로리 모턴슨, 12월호, 친12

나카노, 마사유키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6월호, 32

난폭한 자에게 맞서서

7월호, 친6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1월호, 30

내 마음의 편한 느낌

마리나 페트로바, 6월호, 46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카를로스 에이 페레스, 8월호, 10

“내 양을 먹이라”

울리세스 소아레스, 11월호, 98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루이스 우발도 파디야 오르티스, 7월호, 37

내게 시키실 일

줄리 비 벡, 5월호, 107

낄, 아넷 말즐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9월호, 9

너 몰몬이니?

아나 리 그라니엘라 로페스, 10월호, 36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10월호, 34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맨러브, 5월호, 13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트, 5월호, 91

네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수잔 비 미켈, 2월호, 친8

넬슨, 러셀 엠

신권의 열쇠, 10월호, 26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11월호, 85

지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입니다, 5월호, 16

노래 (또한 음악 참조)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델마 맥 키는

앤더슨과 찰린 앤더슨 뉴웰, 4월호, 친13

회복된 진리, 엘린 엘 존스 이세와 루드비히 반

베토벤, 10월호, 친10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친2

노우, 루어라이

오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8월호, 친12

노후의 삶을 축복하는 선교 사업

12월호, 26

누가 주의 편이냐?

로버트 시 옥스, 5월호, 48

뉴얼, 닐 케이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9월호, 42

뉴웰, 찰린 앤더슨과 델마 맥 키는 앤더슨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4월호, 친13

C

다 실바, 호세 루이스

신앙으로 지은 집, 4월호, 38

다미아니, 아데미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5월호, 94

단정함

영웅, 김벌리 웹, 10월호, 친14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11월호, 13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28

담장 뛰어넘기

대릴 에이치 간, 6월호, 친8

대제사 장원회

데이비드 이 소랜슨, 6월호, 40

대중 매체 (또한 인터넷 참조)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7월호, 21

댄디로부터 얻은 교훈

8월호, 친6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워스런, 11월호, 16

데 게라, 막달레나 페냐테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9월호, 38

데 미티오,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하스민과 안식일, 2월호, 37

데이 오오스, 벤하민

참된 행복: 의식적인 결정, 11월호, 3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헨리 비 아이어링, 3월호, 14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2월호, 친6

난폭한 자에게 맞서서, 7월호, 친6

댄디로부터 얻은 교훈, 8월호, 친6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 3월호, 친8

데이비드의 애완 수택지, 6월호, 친6

루 진을 위한 기도, 10월호, 친6

부모님의 신앙, 1월호, 친6

음악의 은사, 12월호, 친6

젊은 사도, 4월호, 친6

푸른 옷을 입은 소녀, 9월호,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신앙의 사절

웨이드 머독, 1월호, 18

데이비드와 엠마 레이

3월호, 친8

데이비드의 애완 수택지

6월호, 친6

도덕성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엠 러셀

벨라드, 11월호, 41

결혼 생활의 유대 안에서, 8월호, 8

누가 주의 편이냐?, 로버트 시 옥스, 5월호, 48

도박,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58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11월호, 13

출산의 신성한 힘, 6월호, 38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2

도박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58

독신 성인 (또한 종교 교육원 참조)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114

돌튼, 일레인 에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5월호,

109

동등한 동반자로서

10월호, 8

동성에게 이끌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1월호, 30

동정심 (또한 친절, 사랑 참조)

동정심에 감동되어, 후안 알도 레오네, 10월호, 44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앤젤리크

페트릭, 9월호, 40

동정심에 감동되어

후안 알도 레오네, 10월호, 44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페델라 엠 무디, 8월호, 42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친2

두아르테, 기도 아론 로메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3월호, 친16

디니, 주디스 에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4월호, 36

디디에이, 찰스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11월호, 4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제프리 알 홀런드, 3월호, 8

딜, 린드세이 티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면, 7월호, 14

2

라벨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친2

라스, 브래드

제가요? 축복을 주라고요?, 1월호, 46

렌달, 니콜 레리오스

엄마와 잘 지내기, 12월호, 35

렌트, 셰릴 시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11월호, 76

렌드, 제럴드 엔

응답된 기도, 7월호, 친8

런드버그, 개리 비

클랩 차우터 이야기, 12월호, 44

레맨, 아이리스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12월호, 43

레오네, 후안 알도

동정심에 감동되어, 10월호, 44

로간의 침례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7월호, 친10

로나 피셔와 아세나카 레수마, 피지 다베우니

마가렛 스나이더, 4월호, 친10

로드리게스, 비르나와 달리아 호킴

파테말라 꼬말라파의 하이로, 1월호, 친14

로메로, 루시아 리베로

마음의 선물, 12월호, 41

로빈스, 린 지

십일조-가난한 자에게도 계명입니다, 5월호, 34

로울스톤, 톰

구조, 3월호, 친14

로퍼, 패트리시아 리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2월호, 친12

로페스, 아나 리 그라니엘라

너 물문이니?, 10월호, 36

로페스, 호세 살바도르 아네스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2월호, 39

룬니, 리차드 엠

폴리네시아의 진주, 10월호, 14

루 진을 위한 기도

10월호, 친6

리드, 로리 시

의의 길로 돌아옴: 외설물을 버림, 2월호, 25

리드, 파멜라

신권회의 한 교사, 2월호, 46

리바스,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10월호, 45

리브시, 로리

집사가 됨, 1월호, 44

리치, 마이클 티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2월호, 36

리퍼스, 마가렛

가족은 영원해, 4월호, 친4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6월호, 친4

나는 하나님의 자녀, 2월호, 친14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10월호, 친4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7월호, 친4

성신의 은사, 8월호, 친4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3월호, 친4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9월호, 친4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12월호, 친4

행복의 계획, 1월호, 친8

□

마음의 선물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 12월호, 41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주디스 에이 디니, 4월호, 36

마키넨, 메이자 카아리나

음식 봉투와 20 마르크, 12월호, 32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폴 케이 시브로스키, 11월호, 35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헨리와 제닐 콜, 7월호, 38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5월호, 64; 11월호, 64

매스터즈, 줄리 에이

어린 양이 팔리던 날, 3월호, 42

맥멀린, 키스 비

감리 감독단, 7월호, 34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권하라, 11월호,

10

맥케이, 데이비드 오 (또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최장의 생애에서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신앙의 사절, 웨이드 머독,

1월호, 18

머독, 웨이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신앙의 사절, 1월호, 18

머물러야 할 곳

재닛 토마스, 8월호, 26

멘러브, 콜린 케이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5월호, 13

멜기세덱 신권 (또한 신권 참조)

감리 감독단, 키스 비 맥멀린, 7월호, 34

대제사 정원회, 데이비드 이 소렌슨, 6월호, 40

십이사도들, 보이드 케이 패커, 9월호, 26

제일회장단 정원회,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36

칠십일 정원회, 얼 시 텅기, 8월호, 30

효율적인 장로 정원회, 데일 이 밀러, 4월호, 30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아이리스 레맨, 12월호, 43

모두를 위한 모형

메릴 제이 베이트먼, 11월호, 74

모범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12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마빈 케이 가드너,

1월호, 32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클레이튼

엠과 크리스틴 킨 크리스티슨, 2월호, 16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친2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67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어려움을 각오하는 제사, 마이클 칙맨, 3월호, 31

영웅, 김벌리 웹, 10월호, 친14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리, 2월호, 친11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12

모성 (또한 부모의 역할 참조)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11월호, 107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년들을 강화함, 수잔 터블류

테너, 6월호, 16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114

모턴슨, 로리

나이저리아 성탄절, 12월호, 친12

목표

결승점, 9월호, 31

몬슨, 토마스 에스

감사의 심오한 힘, 9월호, 2

교회 역원 지지, 11월호, 23

교회 역원 지지, 5월호, 23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6월호, 2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8월호, 친2

라벨의 메시지, 3월호, 친2

모범이 되십시오, 5월호, 112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5월호, 19

봉사, 신성한 부름, 5월호, 54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11월호, 67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11월호, 56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2월호, 2

몬토우야, 존 하이크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9월호, 39

“물론 가입 금지”
10월호, 46

물문경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8월호, 33
물문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11월호, 33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6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테프트 벤슨, 1월호,
8
물문경과 더불어 기뻐하라, 9월호, 25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톱 페리,
11월호, 6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8월호, 7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예즐리,
5월호, 10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0

물문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11월호, 33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6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테프트 벤슨, 1월호, 8

물문경과 더불어 기뻐하라
9월호, 25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톱 페리, 11월호, 6

무디, 매달라 엠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8월호, 42

무료 차단 프로그램
6월호, 15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톱 페리, 5월호, 84

미러, 로드리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10월호, 34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닐 엘 앤더슨, 5월호, 46

미첼, 수잔 비
내가 스스로 선택하거라, 2월호, 친8

믿으라
1월호, 13

밀러, 데일 이
효율적인 장로 정의회, 4월호, 30

방문 교육 메시지
물문경과 더불어 기뻐하라, 9월호, 25
상호부조회 조직 안에서 기뻐함, 3월호, 25

선교 사업을 기뻐하며, 7월호, 25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6월호, 25

신권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기뻐함, 4월호, 25

신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2월호, 25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10월호, 2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기뻐함, 1월호, 2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기뻐함, 12월호, 25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뻐함, 8월호, 25

배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2월호, 12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8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78

벨라드, 엠 러셀
인물 탐구: 엠 러셀 벨라드, 8월호, 친11

벨라드, 엠 러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11월호, 41
한 사람만 더, 5월호, 69

버틀러, 새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월호, 12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9월호, 10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3월호, 20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4월호, 18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십시오
4월호, 34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마빈 케이 가드너, 1월호, 32

베드나, 데이비드 에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헨리 비 아이어링, 3월호, 14

베드나, 데이비드 에이
선교사가 됨, 11월호, 44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5월호, 99

베이트먼, 메릴 제이
모두를 위한 모형, 11월호, 74

베토벤, 루드비히 반과 앨런 엘 존스 이세
회복된 진리, 10월호, 친10

벡, 줄리 비
내게 시키실 일, 5월호, 107

벤슨, 바트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8월호, 40

벤슨, 에즈라 테프트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1월호, 8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9

빙 고침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2
루 진을 위한 기도, 10월호, 친6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러셀 엠 넬슨,
11월호, 85

11월호, 85

보혜사
제임즈 이 파우스트, 4월호, 친2

보호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친2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2월호,
36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너, 6월호, 친14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아르린 하우스맨,
10월호, 45

복음 고전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에즈라 테프트 벤슨, 1월호,
8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류 헌터, 12월호, 12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클레이튼 엠과 크리스틴 킨 크리스티슨, 2월호, 16

봉사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11월호, 107
구유에 붓을 지푸라기, 수 존슨, 12월호, 42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야네스 로페스, 2월호, 39
내게 시키실 일, 줄리 비 벡, 5월호, 107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튼, 5월호, 91
노후의 삶을 축복하는 선교 사업, 12월호, 26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워스틴, 11월호,
16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 폴 케이 시브로스키, 11월호, 35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4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39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2월호, 친12
십 리를 동행하여, 바바라 호프, 7월호, 친12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6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월호, 110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닦은 우리 친구, 캐서린
에이치 휴즈, 5월호, 74
음식 봉투와 20 마르크, 메이지 카아리나 마키넨,
12월호, 32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114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너, 6월호, 친14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4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53

부모님의 신앙
1월호, 친6

부모의 역할 (또한 어린이, 가족, 모성 참조)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
동등한 동반자로서, 10월호, 8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즈 이 파우스트,
10월호, 2

부부 선교사 (또한 선교 사업 참조)

나이지리아 성탄절, 로리 모턴슨, 12월호, 친12
노후의 삶을 축복하는 선교 사업, 12월호, 26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39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39

부활 (또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참조)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델마 맥 키논
앤더슨과 잘린 앤더슨 뉴웰, 4월호, 친13

부활절 (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참조)

어린 양이 팔리던 날, 줄리 에이 매스터즈, 3월호,
42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부활절 프로그램, 론다 김
헨리치슨, 3월호, 친10

불빛

보 피터슨, 1월호, 친10

브러프, 몬트 제이

간증을 얻은 새벽, 9월호, 친14

블랙, 엘리즈

성탄 강림절 화환, 12월호, 친8

비디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11월호, 105



사라진 지갑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루시오스, 7월호, 46

사랑 (또한 자애, 동정심 참조)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8월호,
40

“내 양을 먹이라”, 올리세스 소아레스, 11월호, 38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친2

데이비드의 애완 수탉지, 6월호, 친6

동등한 동반자로서, 10월호, 8

마음의 선물,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 12월호, 41

사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호, 친8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7월호, 32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2월호, 친12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즈 이 파우스트,
10월호, 2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월호, 110

잃었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1월호, 26

사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호, 친8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7월호, 32

사우트론, 루시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해요, 12월호, 35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친2

산체스, 아달베르트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1월호, 38

상호 향상 모임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1월호, 45

상호부조회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11월호, 107

비디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11월호, 105

상호부조회 조직 안에서 기뻐함, 3월호, 25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3월호, 26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월호, 110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114

상호부조회 조직 안에서 기뻐함

3월호, 25

상황에 맞게 조절함

12월호, 30

선교 도구가 되는 가정의 밤

6월호, 34

선교 사업 (또한 개종, 부부 선교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참조)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디시 랜들
오브슨, 9월호, 16

게시의 영, 엠 곤잘로 세풀베다, 2월호, 42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아녜스 로페즈, 2월호, 39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존 하이로 몬도우야, 9월호,
39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트 에스
산체스, 1월호, 38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오

플로레스, 8월호, 41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아넷 말즐 넵, 9월호,
9

내게 시키실 일, 줄리 비 벡, 5월호, 107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10월호, 34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친2

물문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11월호, 33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톰 페리, 5월호, 84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클레이튼
엠과 크리스틴 킨 크리스티슨, 2월호, 16

선교 도구가 되는 가정의 밤, 6월호, 34

선교 사업을 기뻐하며, 7월호, 25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44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기, 로버트 피터슨, 6월호,

친13

선생님을 가르침, 프린스 아이헨코로, 2월호, 26
어느 선교사의 소망, 타파드즈와 탄자니, 7월호, 22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앤 아 킨,
7월호, 43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2월호, 22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2월호, 11
한 사람만 더, 엠 러셀 벨라드, 5월호, 69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진 에이 테란, 10월호,
친8

선교 사업을 기뻐하며

7월호, 25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견경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윌리엄 디 오스왈드, 6월호, 12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44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기

로버트 피터슨, 6월호, 친13

선생님을 가르침

프린스 아이헨코로, 2월호, 26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2월호, 친12

선장의 아들

리사 페렐리우스, 7월호, 친14

선지자 (또한 계시 참조)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테너,
5월호, 104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위스틴, 11월호,
16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톰 페리,
11월호, 6

부름을 받고 백함을 입은 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53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8월호, 7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의 권고에 감사함, 스티븐
비 오브슨, 5월호, 96

연차 대화의 축복, 폴 브이 존슨 장로, 11월호, 50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11월호,
48

조셉 스미스 이세 -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67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브리타니 쉘트셀러, 12월호, 친10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8월호, 7

선지자의 생애: 요람-버몬트 주, 사론

12월호, 18

선택 및 책임을 짊 (또한 선택의지 참조)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아담 시 울슨, 8월호, 44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7월호, 21

힘든 결정, 리차드 지 스코트, 6월호, 8

선택의지 (또한 선택 및 책임을 짊 참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1월호, 100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10월호, 친4

내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수잔 비 미첼, 2월호, 친8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마가렛 리퍼스, 9월호, 친4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앎, 앤 시 핑그리, 11월호, 112

훌륭한 선택, 줄리 와델, 10월호, 친11

설, 돈 열

십일조에 대한 어느 가족의 간증, 12월호, 16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하여

아담 시 울슨, 9월호, 32

성신 (또한 영감, 평화, 계시 참조)

간증을 함, 제이 이 젠슨, 10월호, 10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그리스도의 빛, 보이드 케이 패커, 4월호, 8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티에리 호츠, 4월호, 37

내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멘러브, 5월호, 13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위스린, 11월호, 16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6

보혜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친2

성신의 은사, 마가렛 리퍼스, 8월호, 친4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5월호, 10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면, 린드세이 티 딜, 7월호, 14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2월호, 36

성신의 은사

마가렛 리퍼스, 8월호, 친4

성약 (또한 침례, 결혼,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테너, 5월호, 104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누가 주의 편이나?, 로버트 시 옥스, 5월호, 48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4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44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6월호, 25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11월호, 94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앎, 앤 시 핑그리, 11월호, 112

성전 및 성전 사업 (또한 성약, 가족 역사, 결혼 참조)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4

거룩한 곳에 섬,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62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위스린, 11월호, 16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마빈 케이 가드너, 1월호, 32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친2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6월호, 25

성전 카드, 4월호, 친16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11월호, 94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10월호, 25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 시 울슨, 3월호, 44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아 티모피바, 7월호, 42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마빈 케이 가드너, 3월호, 34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02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 7월호, 45

하나로 묶인 마음들, 헨리 비 아이어링, 5월호, 77

성전 의식의 회복과 성약을 기뻐함

6월호, 25

성전 카드

4월호, 친16

성찬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성탄 강림절 환환

엘리자 블랙, 12월호, 친8

성탄절

구유에 넣을 지푸라기, 수 존슨, 12월호, 42

기쁨에 찬 절기: 제일회장단이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친2

나이지리아 성탄절, 로리 모턴슨, 12월호, 친12

마음의 선물,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 12월호, 41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아이리스 레멘, 12월호, 43

성탄 강림절 환환, 엘리자 블랙, 12월호, 친8

성탄절기에 읽을 거리 12가지, 12월호, 7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1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류 헨터, 12월호, 12

성탄절기에 읽을 거리 12 가지

12월호, 7

세미나리 성구의 힘

9월호, 21

세미나리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헨리와 제일 콜, 7월호, 38

세미나리 성구의 힘, 9월호, 21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아담 시 울슨, 10월호, 40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아담 시 울슨, 8월호, 44

폴리네시아의 진주, 리차드 엠 롬니, 10월호, 14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아담 시 울슨, 10월호, 40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5월호, 10

세플베다, 엠 곤잘로

계시의 영, 2월호, 42

소렌슨, 데이비드 이

대제사 정원희, 6월호, 40

신앙이 해당입니다, 5월호, 72

소망

어느 선교사의 소망, 타파드스와 탄자니, 7월호, 22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미 다미아니, 5월호, 94

의의 길로 돌아오: 외설물을 버림, 로리 시 리드, 2월호, 28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4월호, 7

소아레스, 올리세스

"내 양을 먹이라", 11월호, 98

속죄 (또한 부활절, 응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 참조)

균형 잡힌 삶, 브렌트 엘 탐, 4월호, 40

모두를 위한 모형, 메릴 제이 베이트먼, 11월호, 74

상황에 맞게 조절함, 12월호, 30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기뻐함, 12월호, 25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4월호, 7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88

속지 마십시오

2월호, 41

쇼어스, 마가렛

가족 역사 두루마리, 4월호, 친9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2

순결 (도덕성 참조)

순종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1월호, 100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누가 주의 편이나?, 로버트 시 옥스, 5월호, 48

담장 뛰어넘기, 대릴 에이치 간, 6월호, 친8

덴드로부터 얻은 교훈, 8월호, 친6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위스린, 11월호, 16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닐 엘 앤더슨, 5월호, 46

신앙이 해당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5월호, 72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9월호, 친2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11월호, 94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앎, 앤 시 핑그리, 11월호, 112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11월호, 96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밀런, 11월호, 10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벨슨, 5월호, 16
힘든 결정, 리차드 지 스코트, 6월호, 8

셴트셀라, 브리티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12월호, 친10

스나이더, 마가렛
로나 피셔와 아세나카 레수마, 피지 다베우니, 4월호, 친10

스노우, 로웰 엠
주님의 나침반, 11월호, 96

스미스, 조셉 (또한 교회 역사, 첫번째 시현, 회복 참조)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수잔 더블류 태너, 5월호, 104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67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브리티니 셴트셀라, 12월호, 친10
선지자의 생애: 요람-버몬트 주, 샤론, 12월호, 18
요셉 스미스로부터 배우는 것, 4월호, 15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12월호, 22
조셉 스미스 가족 나무, 12월호, 20
조셉 스미스 이세 -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103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8

스보노도바, 바츨라바
개종, 10월호, 31

스코트, 리차드 지
인물 탐구 리차드 지 스코트, 4월호, 친8

스코트, 리차드 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5월호, 29
회복된 진리, 11월호, 78
힘든 결정, 6월호, 8

스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케빈 프로파스코, 1월호, 40

스팽글러, 다이앤 엘
육신, 성스러운 선물, 7월호, 16

시브로스키, 폴 케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 11월호, 35

시온의 언덕 위에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70

신권 (또한 아론 신권, 멜기세덱 신권 참조)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앨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누가 주의 편이나?, 로버트 시 옥스, 5월호, 48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4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11월호, 53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44
신권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기뻐함, 4월호, 25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6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43
제가요? 축복을 주라고요?, 브래드 라슨, 1월호, 46
침례와 확인을 위한 권능, 8월호, 친10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0
형제애의 불, 러렌 포터 곤트, 6월호, 43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4월호 18

신권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기뻐함
4월호, 25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벨슨, 10월호, 26

신권회의 한 교사
파벨라 리드, 2월호, 46

신성한 본성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09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가렛 리퍼스, 2월호, 친14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2월호, 친5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1월호, 30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28

신앙 (또한 개종, 간증 참조)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이터 에프 후흐도르프, 11월호, 100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6월호, 친4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친2
부모님의 신앙, 1월호, 친6
신앙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5월호, 72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6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테마 다미아니, 5월호, 94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친12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2월호, 34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7월호, 28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99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11월호, 96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밀런, 11월호, 10
태풍과 시련, 피시벌 토미, 7월호, 37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02

신앙으로 지은 집
호세 루이스 다 실바, 4월호, 38

신앙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5월호, 72

신체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2월호, 34
육신, 성스러운 선물, 다이앤 엘 스팅글러, 7월호, 16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11월호, 13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28

신회
신회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2월호, 25
신회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2월호, 25

십 리를 동행하여
바바라 호프, 7월호, 친12

십 퍼센트 여러분의마음을 더하여
12월호, 17

십이사도 (또한 선지자, 특별한 증인 참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2월호, 12
십이사도들, 보이드 케이 패커, 9월호, 26
젊은 사도, 4월호, 친6

십이사도들
보이드 케이 패커, 9월호, 26

십일조—가난한 자에게도 계명입니다
린 지 로빈스, 5월호, 34

십일조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더시 랜들 오브슨, 9월호, 16
나의 십일조 타이어, 사다 웨스트브룩, 6월호, 44
사라진 지갑,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루시오스, 7월호, 46
십 퍼센트 여러분의마음을 더하여, 12월호, 17
십일조—가난한 자에게도 계명입니다, 린 지 로빈스, 5월호, 34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9월호, 친8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마스, 10월호, 45
십일조에 대한 어느 가족의 간증, 돈 엘 셀, 12월호, 16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하늘 문, 마리엔 달 존슨, 9월호, 친10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러, 2월호, 친11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9월호, 친8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바스, 10월호, 45

십일조에 대한 어느 가족의 간증

돈 엘 설, 12월호, 16



아 퀴, 아담 엔

우리에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7월호, 43

아론 신권 (또한 신권 참조)

감리 감독단, 키스 비 맥멀린, 7월호, 34

교사 정원희, 2월호, 44

신권회의 한 교사, 파멜라 리드, 2월호, 46

어려움을 각오하는 제사, 마이클 칩맨, 3월호, 31

제사 정원희, 3월호, 32

집사 정원희, 1월호, 42

집사가 됨, 로리 리브시, 1월호, 44

아름다운 세상: 계획의 일부

1월호, 친13

아이디어 목록

성탄절기에 읽을 거리 12가지, 12월호, 7

세미나리 성구의 힘, 9월호, 21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7월호, 21

아이어링, 헨리 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3월호, 14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11월호,

37

하나로 묶인 마음들, 5월호, 77

항상 그를 기억하고, 12월호, 8

아이헨코로, 프린스

선생님을 가르침, 2월호, 26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9월호, 친2

안식일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해요, 루시 사우트론,

12월호, 35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루이스 아리엘 호세,

3월호, 47

하스민과 안식일,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테

미티요, 2월호, 37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루이스 아리엘 호세, 3월호, 47

알베알, 마리아 에스피노사

야영지에서 구조됨, 7월호, 26

앤더슨, 닐 엘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5월호, 46

앤더슨, 델마 맥 키노와 찰린 앤더슨 뉴엘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4월호, 친13

앤더슨, 디 알렌

왜 역경을 겪는가?, 7월호, 28

야영지에서 구조됨

마리아 에스피노사 알베알, 7월호, 26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11월호, 94

어느 선교사의 소망

타파드즈와 탄자니, 7월호, 22

어떤 음악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3월호, 24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새나 버틀러, 3월호, 20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앤젤리크 페트리, 9월호, 40

어떻게 하면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6월호, 22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어려움을 각오하는 제사

마이클 칩맨, 3월호, 31

어린 양이 팔리던 날

줄리 에이 매스터즈, 3월호, 4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금식 헌금이 뭐예요?, 김벌리 웹, 6월호, 친10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9월호,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해, 2월호, 친16

오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루어라이 노우, 8월호,

친12

어린이 (또한 가족, 부모의 역할 참조)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콜린 케이

멘러브, 5월호, 13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십시오, 4월호, 34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9

사랑하고 보살핌 엄숙한 책임, 7월호, 32

엄마와 잘 지내기

니콜 레리오스 랜달, 12월호, 35

에즐리, 리차드 시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5월호, 10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펴 골든 이세, 2월호, 8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6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면

린드세이 티 달, 7월호, 14

역경 (또한 견디어 냄 참조)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2

상황에 맞게 조절함, 12월호, 30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펴 골든 이세, 2월호, 8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미

다미아니, 5월호, 94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7월호, 28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아

티모피바, 7월호, 42

태풍과 시련, 퍼시벌 토미, 7월호, 37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미 다미아니, 5월호, 94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의 권고에 감사함

스티븐 비 오브슨, 5월호, 96

연차 대회

연차 대회의 축복, 폴 브이 존슨 장로, 11월호, 50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11월호, 96

연차 대회의 축복

폴 브이 존슨 장로, 11월호, 50

영감 (또한 성신, 계시 참조)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8월호,

40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패멀라 엠 무디, 8월호,

42

영에 귀 기울임, 마크 파레데스, 6월호, 45

“예기치 않았던” 만남, 2월호, 38

이렇게 기록을 찾았습니다!, 8월호, 12

지극히 작은 일, 새넌 밴더스폴 왓슨, 1월호, 39

영구 교육 기금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닐 케이 뉴엘, 9월호,

42

영에 귀 기울임

마크 파레데스, 6월호, 45

영웅

김벌리 웹, 10월호, 친14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10월호, 25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아담 시 울슨, 8월호, 44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예기치 않았던” 만남

2월호, 38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러셀 엠 벨슨, 11월호, 85

예수 그리스도 (또한 속죄, 성탄절, 부활절, 부활

참조)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

구조, 톰 로울스톤, 3월호, 친14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3월호,

2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다이어트 에프 후트트도르프, 11월호, 100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6월호, 친4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6

사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8월호, 친8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셀 엠 넬슨, 11월호, 85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마가렛 리퍼스, 3월호, 친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친1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기뻐함, 1월호, 25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멀린, 11월호, 10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마가렛 리퍼스, 3월호, 친4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3월호, 친1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6월호, 친1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기뻐함
1월호, 2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기뻐함
12월호, 25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십 리를 동행하여, 바버라 호프, 7월호, 친12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기도 아론 로메로 두아르테, 3월호, 친16

오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루어라이 노우, 8월호, 친12

오르티스, 루이스 우발도 파디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7월호, 37

오브슨, 스티븐 비
연로하여 허리가 굽은 분들의 권고에 감사함, 5월호, 96

오브슨, 스티븐 비와 디시 랜들 오브슨
개인적인 헌납, 9월호, 16

오스월드, 윌리엄 디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접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6월호, 12

오캄포, 월손 아르레이
599번의 침례, 8월호, 16

오히와부콜라, 오레아바
특별한 월요일, 3월호, 47

옥스, 델린 에이치
외설물, 5월호, 87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11월호, 24

옥스, 로버트 시
누가 주의 편이냐?, 5월호, 48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마가렛 리퍼스, 9월호, 친4

울슨, 아담 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9월호, 10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하여, 9월호, 32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10월호, 40

영원한 것들을 위한 시간, 8월호, 44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3월호, 44

피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4월호, 26

와델, 즐리
훌륭한 선택, 10월호, 친11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8월호, 친2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친2

라벨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친2

보혜사, 제임즈 이 파우스트, 4월호, 친2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7월호, 친2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9월호, 친2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친2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친2

침례를 통해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월호, 친2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2월호, 34

웃는, 새년 밴더스플
자극히 작은 일, 1월호, 39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7월호, 28

외설물
델린 에이치 옥스, 5월호, 87

외설물
외설물, 델린 에이치 옥스, 5월호, 87

외설물이 제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호, 22

의의 길로 돌아옴: 외설물을 버림, 로리 시 리드, 2월호, 28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마리오 하이폴, 8월호, 18

외설물이 제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호, 22

요나의 회개
7월호, 친13

요셉 스미스로부터 배우는 것
4월호, 15

용기
난폭한 자에게 맞서서, 7월호, 친6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친2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67

용서 (또한 속죄, 회개 참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앤젤리크 페트릭, 9월호, 40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친2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1

음식 봉투와 20 마르크, 메이자 카아리나 마키넨, 12월호, 32

인간의 가치, 해롤드 지 힐램, 5월호, 32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친2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1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3월호, 26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월호, 110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부활절 프로그램
론다 김 힌리치슨, 3월호, 친10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2월호, 36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나테 데 케라, 9월호, 38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 시 울슨, 3월호, 44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나 티오피바, 7월호, 42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텔마 맥 키는 앤더슨과 찰린 앤더슨 뉴웰, 4월호, 친13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엔 아퀸, 7월호, 43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43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닦은 우리 친구
캐서린 에이치 휴즈, 5월호, 74

우정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사람들, 마빈 케이 가드너, 1월호, 32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닦은 우리 친구, 캐서린 에이치 휴즈, 5월호, 74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제니안 젠슨, 4월호, 44

지구의 중심에서,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26

우흐트도르프, 디터 에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11월호, 100

첫번째 시현의 결실, 5월호, 36

우흐트도르프, 디터 에프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제프리 알 홀런드, 3월호, 8

인물 탐구: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2월호, 친15

워닉, 멜로디
허리케인 속의 집, 6월호, 친14

워스린, 조셉 비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11월호, 16

친절의 미덕, 5월호, 26

웨스트브룩, 사라
나의 십일조 타이어, 6월호, 44

웨인, 패트
장미 정원, 4월호, 친14

웹, 김벌리

금식 헌금이 뭐예요?, 6월호, 친10
영웅, 10월호, 친14

유혹 (또한 회개 참조)

모범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112
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닐 엘
앤더슨, 5월호, 46
속지 마십시오, 2월호, 41

육신, 성스러운 선물

다이앤 엘 스펡글러, 7월호, 16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테너, 11월호, 13

음식 봉투와 20 마르크

메이저 카아리나 마키넨, 12월호, 32

음악 (또한 노래 참조)

어떤 음악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3월호, 24
엄마와 잘 지내기, 니콜 레리오스 랜달, 12월호, 35
음악의 은사, 12월호, 친6

음악의 은사

12월호, 친6

응답된 기도

제럴드 앤 런던, 7월호, 친8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7월호, 21

의무

봉사, 신성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4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6

의의 길로 돌아옴: 외설물을 버림

로리 시 리드, 2월호, 28

이렇게 기록을 찾았습니다!

8월호, 12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4월호, 7

인간의 가치

해럴드 지 헬렐, 5월호, 32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11월호, 48

인내심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51

인물 탐구: 리차드 지 스코트

4월호, 친8

인물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월호, 친4

인물 탐구: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2월호, 친15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뻐함

8월호, 25

인터넷 (또한 대중 매체 참조)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마리오
하이폴, 8월호, 18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마리오 하이폴, 8월호, 18

있었다가 다시 힘겹게 찾은 사랑

1월호, 26

ㅈ

자립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마빈 케이 가드너,
3월호, 34

자신감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힘으로 전진함,
헨리 비 아이어링, 3월호, 14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미
다미아니, 5월호, 94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호, 22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99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앤 시 핑그리, 11월호, 112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6월호, 친2

자애 (또한 사랑 참조)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휘튼, 5월호, 91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제니안 젠슨, 4월호, 44

장미 정원

패트 웨인, 4월호, 친14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년들을 강화함

수잔 더블류 테너, 6월호, 16

재림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8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가렛 리퍼스, 12월호, 친4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2월호, 22

짧은 사도

4월호, 친6

정직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67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12월호, 22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호, 22

제가요? 축복을 주라고요?

브래드 라슨, 1월호, 46

제사 정원회

3월호, 32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12월호, 1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2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제임스 이 파우스트, 3월호,
2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2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2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4월호, 2
조셉 스미스 이세 -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2

제일회장단 정원회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36

젠슨, 제니안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4월호, 44

젠슨, 제이 이

간증을 함, 10월호, 10

조셉 스미스 가족 나무

12월호, 20

조셉 스미스 이세 -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존스, 수

구유에 불을 지푸라기, 12월호, 42

존스, 앨런 엘 이새와 루드비히 반 베토벤

회복된 진리, 10월호, 친10

존슨, 마리앤 달

하늘 문, 9월호, 친10

존슨, 폴 브이

연차 대회의 축복, 11월호, 50

종교 교육원

머물려야 할 곳, 재닛 토마스, 8월호, 26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99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11월호, 96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114

죽음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2
상황에 맞게 조절함, 12월호, 30
장미 정원, 패트 웨인, 4월호, 친14
지금야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5월호, 16

준비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울슨과 로저 테리, 9월호, 10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0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 집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윌리엄 디 오스왈드, 6월호, 12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44
 시온의 언덕 위에,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70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넬슨, 10월호, 26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멀린, 11월호, 10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5월호, 16
 집사 정원회, 1월호, 42
 한 사람만 더, 엠 러셀 벨라드, 5월호, 69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멀린, 11월호, 10
지구의 중심에서
 마빈 케이 가드너, 6월호, 26
지극히 작은 일
 새년 밴더스플 왓슨, 1월호, 39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5월호, 16

지도력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맬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24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53

지속적인 활동 (또한 우정 증진 참조)

“내 양을 먹이라”, 올리세스 소아레스, 11월호, 98

지혜의 말씀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오
 플로레스, 8월호, 41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11월호, 13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마사유키
 나카노, 6월호, 32
 훌륭한 선택, 줄리 와델, 10월호, 친11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마사유키 나카노, 6월호, 32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닐 케이 뉴얼, 9월호, 42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2월호, 2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6월호, 22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반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10월호, 22
 외설물이 제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호, 22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2월호, 22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12월호, 22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호, 22

집사 정원회

1월호, 42

집사가 됨

로리 리브시, 1월호, 44

짧은 메시지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해요, 루시 사우트론,
 12월호, 35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루이스 우발도
 파디야 오르티스, 7월호, 37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루이스 아리엘 호세,
 3월호, 47
 엄마와 잘 지내기, 니콜 레리오스 랜달, 12월호, 35
 태풍과 시련, 퍼시벌 토미, 7월호, 37
 특별한 월요일, 오레야마 오히와부클라, 3월호, 47

웃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류 헌터, 12월호, 12

참된 행복: 의식적인 결정

벤하민 데이 오요스, 11월호, 31

참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2월호, 친5
 아름다운 세상: 계획의 일부, 1월호, 친13

첫번째 시현 (또한 회복; 스미스, 조셉 참조)

민오라, 1월호, 13
 첫번째 시현의 결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월호, 36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0

첫번째 시현의 결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월호, 36

청녀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녀들을 강화함, 수잔 더블류
 태너, 6월호, 16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28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28
 초우트, 제인 맥브라이드
 로간의 침례, 7월호, 친10
 사랑으로 예수님을 돌려싸고, 8월호, 친8

축복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톰 페리,
 11월호, 6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99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2월호, 11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11월호,
 92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2월호, 11

출산의 신성한 힘

6월호, 38

친구 사귀기

파테말라 꼬말라파의 하이로, 달리아 호콕과 비르나
 로드리게스, 1월호, 친14
 로나 피셔와 아세나카 레수마, 피지 다베우니,
 마가렛 스나이더, 4월호, 친10
 한스 니에도 에콰도르, 과야킬, 마빈 케이 가드너,
 8월호,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간증을 얻은 새벽, 몬트 제이 브리프, 9월호, 친14
 거룩하신 주님의 빛, 수잔 더블류 태너, 3월호, 친6
 담장 뛰어넘기, 대릴 에이치 간, 6월호, 친8
 응답된 기도, 제럴드 앤 런던, 7월호, 친8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진 에이 테판, 10월호,
 친8

친절 (또한 동정심, 봉사 참조)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아이리스 레맨, 12월호, 43
 오드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루어라이 노우, 8월호,
 친12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닳은 우리 친구, 캐서린
 에이치 휴즈, 5월호, 74
 음악의 은사, 12월호, 친6
 친절의 미덕, 조셉 비 워스린, 5월호, 26
 푸른 옷을 입은 소녀, 9월호, 친6

친절의 미덕

조셉 비 워스린, 5월호, 26

칠십인 정원회

얼 시 텅기, 8월호, 30

침례 (또한 개종, 성야 참조)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마가렛 리퍼스,
 7월호, 친4
 내 마음의 편한 느낌, 마리아 페트로바, 6월호, 46
 로간의 침례,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7월호, 친10
 침례를 통해 거듭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친2

침례를 통해 거듭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친2

침례와 확신을 위한 권능

8월호, 친10

침맨, 마이클

어려움을 각오하는 제사, 3월호, 31

ㅋ

카레노, 프레디 더블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7월호, 45

카울리, 매튜

한 자매님의 모범, 2월호, 친11

캔트웰, 로버트 더블류

2004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5월호, 24

컬리커, 폴 이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11월호, 94

콜, 헨리와 제널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7월호, 38

콜롬비아의 성도: 강력한 모범

마빈 케이 가드너, 3월호, 34

크리스틴슨, 클레이튼 엠과 크리스틴 킨 크리스틴슨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2월호, 16

클랩 차우더 이야기

개리 비 런던버그, 12월호, 44

E

탄자니, 타파드즈와

어느 선교사의 소망, 7월호, 22

탐, 브렌트 엘

균형 잡힌 삶, 4월호, 40

태너, 수잔 더블류

거룩하신 주님의 빛, 3월호, 친2

태너, 수잔 더블류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 5월호, 104

육신의 신성, 11월호, 13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년들을 강화함, 6월호, 16

태도

훌륭한 태도를 키움, 7월호, 13

태풍과 시련

퍼시벌 토미, 7월호, 37

테리, 로저, 새나 버틀러와 아담 시 울슨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9월호, 10

테판, 진 에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10월호, 친8

토마스, 재닛

머물러야 할 곳, 8월호, 26

토미, 퍼시벌

태풍과 시련, 7월호, 37

투루시오스,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사라진 지갑, 7월호, 46

특별한 월요일

오레야바 오히와부콜라, 3월호, 47

특별한 증인

인물 탐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2월호, 친15

인물 탐구: 리차드 지 스코트, 4월호, 친8

인물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2월호, 친4

인물 탐구: 엠 러셀 벨라드, 8월호, 친11

티모피바, 마리나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7월호, 42

팅기, 얼 시

철심인 정원회, 8월호, 30

F

파레데스, 마크

영에 귀기울임, 6월호, 45

파우스트, 제임즈 이

거룩한 곳에 섬, 5월호, 62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11월호, 20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3월호, 2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7월호, 2

보혜사, 4월호, 친2

부름을 받고 백함을 입은 자, 11월호, 5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10월호, 2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9월호, 친2

인내심, 5월호, 51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6월호, 친2

주님의 손에 든 도구, 11월호, 114

침례를 통해 거듭남, 1월호, 친2

파킨, 보니 디

감미로운 순간들, 11월호, 107

패커, 보이드 케이

그리스도의 빛, 4월호, 8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간결하고

진귀한 것들, 5월호, 6

시온의 언덕 위에, 11월호, 70

십이사도들, 9월호, 26

패커, 보이드 케이

인물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2월호, 친4

퍼넬리우스, 리사

선장의 아들, 7월호, 친14

페레스, 카를로스 에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가족 역사, 8월호, 10

페리, 엘 톱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11월호, 6

무엇을 구하느냐, 5월호, 84

페트로바, 마리나

내 마음의 편한 느낌, 6월호, 46

페트릭, 앤젤리코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9월호, 40

평화 (또한 성신, 회개 참조)

거룩한 곳에 섬, 제임즈 이 파우스트, 5월호, 62

구세주 안에서 느끼는 평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2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7월호, 2

신앙이 해답입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5월호, 72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며 충실하십시오, 아데미

다미아니, 5월호, 94

용서, 고든 비 힝클리, 10월호, 친2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103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02

포스터

결승점, 9월호, 31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8월호, 33

무료 차단 프로그램, 6월호, 15

믿으라, 1월호, 13

속지 마십시오, 2월호, 41

십 퍼센트 여러분의마음을 더하여, 12월호, 17

어떤 음악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3월호, 24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4월호, 7

훌륭한 태도를 키움, 7월호, 13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기도 아론 로메로 두아르테, 3월호, 친16

폴리네시아의 진주

리차드 엠 톱니, 10월호, 14

푸른 옷을 입은 소녀

9월호, 친6

프로파스코, 케빈

스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1월호, 40

플로레스, 힐도 로시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8월호, 41

피더슨, 보

불빛, 1월호, 친10

피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아담 시 울슨, 4월호, 26

피터슨, 로버트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기, 6월호, 친13

핑그리, 앤 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앎, 11월호, 112

ㅎ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 7월호, 45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0

하나로 묶인 마음들

헨리 비 아이어링, 5월호, 77

하늘 문

마리앤 달 존슨, 9월호, 친10

하스민과 안식일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데 미티요, 2월호, 37

하우스맨, 아르린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10월호, 45

하이플, 마리오

인터넷 상의 부도덕한 것들과의 싸움, 8월호, 18

한 사람만 더

엠 러셀 벨라드, 5월호, 69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리, 2월호, 친11

한스 니에토 에콰도르, 콰야킬

마빈 케이 가드너, 8월호, 친14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족은 영원해, 마가렛 리퍼스, 4월호, 친4

나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6월호, 친4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1월호, 삽입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가렛 리퍼스, 2월호, 친14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마가렛 리퍼스, 10월호, 친4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마가렛 리퍼스, 7월호, 친4
 성신의 은사, 마가렛 리퍼스, 8월호, 친4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마가렛 리퍼스, 3월호, 친4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마가렛 리퍼스, 9월호, 친4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가렛 리퍼스, 12월호, 친4
 행복의 계획, 마가렛 리퍼스, 1월호, 친8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행복 (또한 기쁨 참조)
 가족 생활의 행복, 9월호, 36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20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마가렛 리퍼스, 9월호, 친4
 참된 행복: 의식적인 결정, 벤하민 데이 오요스, 11월호, 31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진 에이 테판, 10월호, 친8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진 에이 테판, 10월호, 친8

행복의 계획
 마가렛 리퍼스, 1월호, 친8

허리케인 속의 집
 멜로디 워낙, 6월호, 친14

헌납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덕시 램들 오브슨, 9월호, 16

헌터, 하워드 더블류
 참된 성탄절, 12월호, 12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아르린 하우스맨, 10월호, 45

헤일즈, 로버트 디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5월호, 39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11월호, 88

형제애의 불
 러렌 포터 곤트, 6월호, 43

호세, 루이스 아리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3월호, 47

호츠, 티에리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4월호, 37

호름, 달리아와 비르나 로드리게스
 파테말라 꼬말라파의 하이로, 1월호, 친14

호프, 바바라
 십 리를 동행하여, 7월호, 친12

홀런드, 제프리 알
 디터 에프 후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3월호, 8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5월호, 43
 청녀들에게, 11월호, 28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월호, 2

활동 촉진
 "내 양을 먹이라", 올리세스 소아레스, 11월호, 98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10월호, 34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로버트 제이 웨튼, 5월호, 91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 폴 케이 시브로스키, 11월호, 35
 인간의 가치, 해롤드 지 램펠, 5월호, 32

회개 (또한 속죄, 용서, 평화, 유혹 참조)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마가렛 리퍼스, 7월호, 친4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37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러셀 엠 넬슨, 11월호, 85
 요나의 회개, 7월호, 친13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러셀 엠 넬슨, 5월호, 16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12월호, 8

회복 (또한 첫번째 시험; 스미스, 조성; 방문 교육 메시지 참조)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1월호, 45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09
 모두를 위한 모형, 메릴 제이 베이트먼, 11월호, 74
 무엇을 구하느냐, 엘 톰 페리, 5월호, 84
 세미한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 리차드 시 에즐리, 5월호, 10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새나 버틀러, 3월호, 20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43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4월호 18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8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78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4월호, 18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8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78

회복된 진리
 앨런 엘 존스 이세와 루드비히 반 베토벤, 10월호, 친10

효율적인 장로 정원희
 데일 이 밀러, 4월호, 30

후기 성도의 소리
 결혼 생활을 위한 뜻밖의 충고, 바트 벤슨, 8월호, 40
 구유에 넣을 지푸라기, 수 존슨, 12월호, 42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아네스 로페스, 2월호, 39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존 하이로 몬토우야, 9월호, 39
 나는 그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아달베르토 에스 산체스, 1월호, 38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티에리 호츠, 4월호, 37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힐도 로시오 플로레스, 8월호, 41
 나의 십일조 타이어, 사라 웨스트브룩, 6월호, 44
 내 마음의 편한 느낌, 마리아 페트로바, 6월호, 46
 동정심에 감동되어, 후안 알도 레오네, 10월호, 44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다, 페멜라 엠 무디, 8월호, 42
 마음의 선물,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 12월호, 41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주디스 에이 디니, 4월호, 36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아이리스 레맨, 12월호, 43
 "물론 가입 금지", 10월호, 46
 사라진 지갑, 예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루시오스, 7월호, 46
 스커너 형제와 함께한 가정 복음 교육, 케빈 프로파스코, 1월호, 40
 신앙으로 지은 집, 호세 루이스 다 실바, 4월호, 38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바스, 10월호, 45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앤젤리크 페트리, 9월호, 40
 영에 귀기울임, 마크 파레데스, 6월호, 45
 "예기치 않았던" 만남, 2월호, 38
 우리가 동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2월호, 36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 9월호, 38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아 티오피바, 7월호, 42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엔 아 킨, 7월호, 43
 지극히 작은 일, 새넌 맨더스폴 왓슨, 1월호, 39
 클럽 차우터 이야기, 개리 비 린드버그, 12월호, 44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 7월호, 45
 하스민과 안식일,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데 미타요, 2월호, 37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아르린 하우스맨, 10월호, 45

훌륭한 선택

줄리 와델, 10월호, 친11

훌륭한 태도를 키움

7월호, 13

웨튼, 로버트 제이

네 형제를 굳게 하라, 5월호, 91

휴즈, 캐서린 에이치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11월호,

110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님은 우리 친구, 5월호, 74

희생 (또한 십일조 참조)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과 딕시 랜들

오브슨, 9월호, 16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39

선장의 아들, 리사 퍼넬리우스, 7월호, 친14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11월호, 94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11월호,

92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11월호, 92

힌리치슨, 론다 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부활절 프로그램, 3월호,

친10

힐람, 해롤드 지

인간의 가치, 5월호, 32

힘든 결정

리차드 지 스코트, 6월호, 8

힝클리, 고든 비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8월호, 2

개회 말씀, 11월호, 4

개회 말씀, 5월호, 4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11월호, 60

도박, 5월호, 58

두려워하지 말라, 2월호, 친2

산 위에 있는 동네, 7월호, 친2

용서, 10월호, 친2

용서, 11월호, 81

우리 신앙의 상징, 4월호, 2

제일회장단 정원희, 12월호, 36

조셉 스미스 이세 -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중,

12월호, 2

폐회 말씀, 11월호, 103

폐회 말씀, 5월호, 102

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5월호, 80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1월호, 2

200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크고 놀라운 일"

1월호, 45

599번의 침례

월손 아르레이 오감포, 8월호, 16

청소년, 세상의 빛

전 세계 청남 청년은 올해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에 집중하고 있다. 이 주제는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에 발표되었다.(128쪽)

당시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모범으로 밝혀 줌으로써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 하여, 주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인가? 우리가 일요일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는 것에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돌릴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께 나아올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경전은 우리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고 상기시켜 준다. 경전에는 간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다.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 변화되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노스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용서를 받

은 후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했다.

지상에서의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실패하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고 곳곳이 설 때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간증의 강도와 힘이 더욱 커질 때,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이 간증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이다. ■

올해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위한 활동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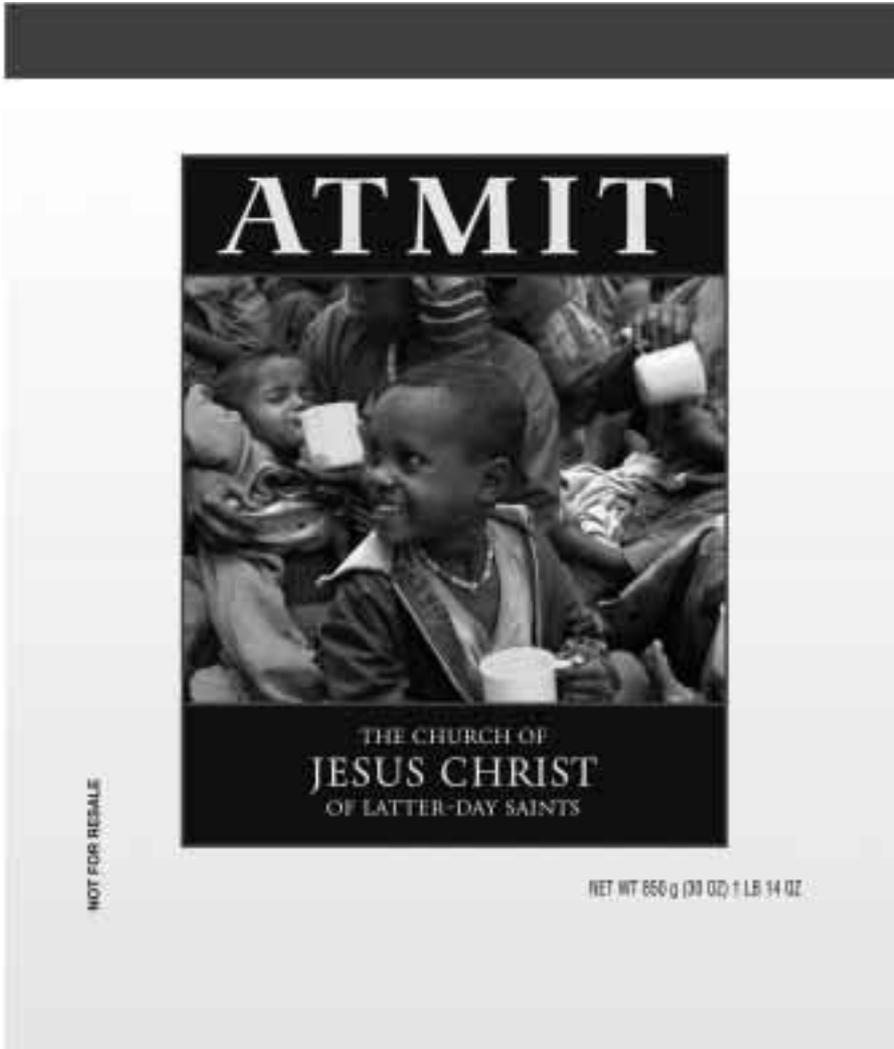
-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성구를 찾아서 읽는다.
- 동틀녘에 간증 모임을 갖는다.
- “높은 산 언덕 위”(찬송가, 2장)의 가사를 암기한다.
- 이름을 밝히지 않고 봉사를 한다.
- 물문경에서 자유의 기치에 대해 읽는다.(엘마서 46:11~27 참조) 여러분의 이상을 나타내는 깃발이나 기치를 만든다.
- 상호 향상 모임 참여자 또는 가족과 함께 경전에 있는 몇몇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해 본다. 경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음직한 옷을 입고, 경전에 나오는 간증을 암기하여 발표한다.
-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근거하여 가정의 밤을 계획한다.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가족과 함께 나눈다.

생명을 구하는 애트밋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2005년 8월, 농작물을 황폐시키는 메뚜기 떼의 공격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한 아프리카 니제르 공화국에 원조를 보내기 위해 가톨릭 구호 단체(Catholic Relief



에트밋은 극심한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교회가 만든 영양 보충 식품이다.

Services)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은 교회는 이제까지 가장 많은 양의 에트밋(atmit)을 항공편으로 보냄으로써 즉각 대처했다. 교회는 극심한 영양 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이 특수한 죽을 36톤 정도 제공했다. 교회는 그 이후로도 에트밋을 보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보낼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어로 에트밋은 “뭍은 영양 죽”을 의미한다. 교회는 2003년에 닥친 에티오피아 기근 동안 구명 보충 식량으로 에트밋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화가 쉽게 되는 식품으로, 현재까지 수

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성분은 잘게 빻은オート밀 가루 50 퍼센트, 탈지 분유 25 퍼센트, 설탕 20 퍼센트, 비타민과 미네랄이 5 퍼센트이다.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자가 에티오피아에서 에트밋 조리법을 받아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양 학자들에게 전달해 영양가를 검사하도록 했다. 교회는 2003년에 에트밋을 만들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복지 서비스 유제품 가공 시설에서 거의 1,500톤 분량을 생산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에트밋을 우간다, 수단, 남아프리카, 아이티, 가자, 방글라

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 배부했다.

어린이들의 몸은 아직 예비 영양분을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영양 실조에 걸리기 쉽다. 그런 이유로 에트밋은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진다.

“온 가족이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섭취하고 있는 종류의 음식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영양 실조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교회의 인도주의 비상 대책 책임자이며 2005년 8월 하순 니제르에서 심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을 방문했던 게리 플레이크 형제는 말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에트밋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키를 재고 체중을 달아 본다. 어머니들은 에트밋을 준비하는 방법과 하루에 걸쳐 주기적으로 먹이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린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점검을 받도록 한다.

“어떤 어린이들은 삼사 주 만에 실제로 반응을 보입니다.”라고 플레이크 형제는 말했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족들이 먹고 있는 종류의 음식을 어린이들이 다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보충 식품을 먹이는 것입니다.”

일정에 따른 아프리카 여행의 일환으로 플레이크 형제는 니제르에 잠시 들러 에트밋의 배부 상황을 살폈다.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보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경험이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으로 판명된 효과적인 식품을 그렇게 빨리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니제르의 어머니들이 애트밋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자녀들을 안고 있다.

플레이크 형제는 유비무환이라는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 덕택에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교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특히 비상 대책이 빠른 단체가 되었습니

다”라고 그는 말했다.

플레이크 형제는 애트밋 배부에 참여한 것은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한 어린이의 가치를 알 때,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애트밋이라는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훌륭한 인도주의 봉사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 즉 극심한 영양 실조에 빠진 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참으로 구주께서 행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방된 세 개의 성전

세 개의 성전이 완공되어 2005년 8월과 9월에 헌납됨으로써 현재 운영되는 성전의 수가 모두 122개에 이르게 되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5년 8월 7일에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했으며, 2005년 8월 28일에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을, 2005년 9월 4일에는 사모아 아피아 성전을 헌납했다.

헌납식은 해당 지역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모든 헌납 기도는 복음의 회복과 신권 열쇠에 대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나타냈으며,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전에 영광을 더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과 사모아 아피아 성전의 헌납 기도문에는 인접한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들에 주는 축복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인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은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그 땅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과 업적의 산물로 간주된다.

“우리는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당신 백성의 신앙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 당신의 교회가 더욱더 칭송과 존경을 받는 이 시대에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 성스러운 건물이 보호되고 존경받게 되기를 간구했다. “성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어떤 손도 어떤 식으로든 성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음과 같이 간구했다. “성전 안으로 들어 오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항상 성스러운 곳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폭풍과 혼란에서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힝클리 회장은 복음이 아프리카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의 성도들이 또 하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지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여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주었다.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하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호의를 가지고 당신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과 특권을 지켜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그는 간구했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당신의 교회가 희미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 선지자 조셉이 커틀랜드에서 성전을 헌납하면서 간구했듯 이제 세상에서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맑게’ 빛을 발함에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헌납식에서 기도했다.

그는 새로운 성전이 자연과 인간이 끼칠 피해로부터 보호되고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축복했다. 또한 그는 교회 회원들이 바친 충실한 십일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힝클리 회장은 성전이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주었다. “이 성전 구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기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일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한 봉사를 통해 그들이 당신의 이 위대한 후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쌓고, 원수의 책략과 세상의 손짓에 맞설 수 있도록 강

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과 간증,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하면서 힝클리 회장은 새로운 성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당신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과 소망을 끌어내 그들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묻고 배우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모아 아피아 성전

원래의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2003년 7월 내부 개조 공사 동안 소실된 지 2년 여 만에 힝클리 회장이 새로운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사모아를 방문했다.

그는 폴리네시아에 성전들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대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다. “사모아의 이 섬들에서 당신께서는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니파이후서 10:21) 옛적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나이다.”

그는 건물과 부지가 성결케 되고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 위에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간구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녹색 초목과 함께 [성전이] 서 있는 부지를 다시 성별하나이다. ...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여 마음 속에서 이 건물을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악한 의도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손길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사모아에 특별한 축복이 내리도록 간구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로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구했다. “사모아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와 자유의 땅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구함



사모아 아피아 성전

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어 당신의 사업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사이에서

성취되어 전세계에 있는 당신 자녀들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

홍역 퇴치 운동,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구하다

국 제적인 의학 잡지 ‘Lancet’의 2005년 9월호에 게재된 한 연구 조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아프리카 19개국에서 홍역 발생을 91퍼센트 감소시킨 공적을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홍역 퇴치 운동과 같은 잘 준비된 홍역 접종 캠페인에 돌렸다. 이러한 캠페인은 2003년 한 해에만 90,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을 예방했다.

“이 연구 조사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전략과 뚜렷한 의지를 가진 단체들의 강한 협력 정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함께한다면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사망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질병관리 센터 역학자이자 이 연구 조사의 주요 저자인 맥 오토 박사가 말했다. “이런

성공의 커다란 원인은 홍역 퇴치 운동의 지원입니다.”

홍역 퇴치 운동은 2001년에 미국 적십자사, 유엔 재단, 질병 관리 센터, 유엔 아동 기금, 세계 보건 기구, 그리고 국제 적십자 및 붉은 초승달 단체 연합에 의해 2001년에 시작된 5개년 프로그램이다. 이 단체들의 목표는 2006년까지 아프리카 36개국에서 2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여 약 120만 명의 사망을 방지함으로써 홍역으로 인한 사망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재난 구호를 위해 교회와 함께 일해 온 적십자사는 이 운동을 후원해 줄 것을 2002년 교회에 요청했다. 교회 복지 서비스의 책임자인 해롤드 브라운 형제가

보니 디 파킨 자매, 홍역 퇴치 운동을 돕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홍역 퇴치 운동에 대한 교회의 의지를 승인했을 때, 힝클리 회장이 이 운동을 “홍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예견했다”고 생각했다.

교회 잡지와 인터뷰에서 파킨 자매는 모잠비크의 16개 지부에 사는 3,000 명 이상의 회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2005년 9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 외곽 지역에서 열린 홍역 퇴치 단체 예방 접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지역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했다. “이는 교회를 어두운 곳에서 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대상 지역에 사는 청년 및 청년과 독신 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접종을 받으러 온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감독하는 일을 도왔다.

“저는 저와 다를 것 없는 여성들을 보았습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했다. “그

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 대해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등에 업고 양 손에 한 명씩 안고 왔습니다. 먼지투성이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온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낮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가족과 아이들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 때문이었고, 그 아이들은 저의 손자 손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어느 날, 파킨 자매는 물려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도우며 어린이들에게 접종 여부를 나타내는 잉크 표시가 있는지 점검했다. 한 어린 소년은 그 표시가 없었다. 파킨 자매는 통역자를 통해 주사를 맞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 소년은 무섭다고 말했다. “내가 같이 가면 가겠니?”라고 파킨 자매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회상했다. “한 명의 어린이만 도왔을 뿐인지 몰라도, 제게는 정말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잠비크에서 예방 접종 캠페인 기간 동안 접종을 받았다. 이번 캠페인은 파킨 자매가 교회 복지 위원회에서 맡은 역할로 인해 참여하게 된 두 번째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또한 2004년 홍역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

파킨 자매는 자신의 역할 중 하나는 “일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달에 걸쳐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임 부부 선교사인 블레어 패커드 장로와 신디 패커드 자매는 모잠비크에서 2005

년 9월 캠페인을 위해 네 달 동안 사전 작업을 하는 특별 임무를 맡아 봉사했다. 그들이 맡은 임무 중 한 가지는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잠비크 출신으로 호주 시드니 2000년 하계 올림픽 800미터 금메달리스트인 마리아 데루즈 무틀라와 함께 밀접히 일했다. 에티오피아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전임 부부 선교사가 부름을 받았다.

파킨 자매는 또한 비교적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훈련 모임을 가졌다.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는 2004년 12월에 조직되었다. “그들은 젊은 개척자들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알만도 구에부자 모잠비크 대통령을 만났다. 그녀는 모잠비크 국민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저는 교회의 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낍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잠비크에서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어린이들이 홍역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03년 6월에 잠비아에서 홍역 퇴치 운동을 지켜본 후, 교회는 미화 300만 달러를 이 운동 기간의 남은 3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활동을 분석했고, 홍역 퇴치 운동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홍역 퇴치 운동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제대로 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행 측면에서 볼 때 기적입니다.”

미국 적십자사에 따르면 홍역 관련 사망은 전세계적으로 1999년 873,000명에서 2003년 약 530,000명으로 39 퍼센트나 급격히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는 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추산된 홍역 사망자 수는 거의 반이나 줄었다. 홍역 퇴치 운동 이전에는 홍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매년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었다.

2004년 말까지 30개국 이상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인당 1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예방 접종을 받았다. 2005년에 이 운동의 협력자들은 원래의 목표를 초과해 추가로 4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 관한 첨부 기사 참조)

마샤 제이 에번즈 미국 적십자사 총재는 교회의 기부 약속을 받은 후 “교회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뜻깊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

기사 모집

리 아호나 8월호에서 핑클리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연말까지 물몬경을 읽으라는 도전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과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는 기사에 “Book of Mormon Challenge”라고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2006년 3월 17일까지 liahona@ldschurch.org 또는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위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적어 주십시오.

각각의 기사에 대한 접수 여부를 통지할 수는 없지만, 출판을 위해 선정된 기사의 저자들에게는 통지될 것입니다. 원고를 돌려받기 원할 경우, 주소와 우표가 동봉된 반송 봉투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최대 일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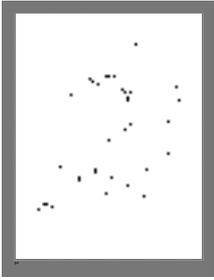
성스러운 숲 포스터

1 월부터 성스러운 숲을 나타내는 특별 포스터를 배부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40cm×50cm 크기로 액자에 넣을 수 있는 이 포스터(물품번호 00204320)는 또한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를 통해서도 배부되었으며, 한국어,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

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가능 여부, 가격 및 주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의 배부 센터에 문의한다. ■



2006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5쪽에 있는 “나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요”를 참조한다.

1.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택했으며, 이곳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네 다섯 곳으로 나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0쪽 참조) 각 위치에 있는 성인 지도자에게 경전에 나오는 인물의 그림을 준다. 예를 들어 복음 그림 패킷 240(예수 그리스도), 303(거역하는 형들을 설득하는 니파이), 319(한때 위대한 민족이었던 니파이 백성에게 작별을 고하는 몰몬), 400(조셉 스미스), 117(사자 굴속의 다니엘), 124(밭에서 이삭을 줍는 룯), 314(성벽 위에서 있는 레이만인 사무엘) 등이 있다. 각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택하고 따랐는지 말해 준다. 각 어린이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을 무언극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룹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때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퍼즐과 노래를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생활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를 가족으로 조직하셨다”(가족 지도서, 3쪽)는 점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각 반에게 퍼즐 조각처럼 잘린 동물 가족 그림을 나누어 주고 퍼즐을 맞추게 한다. 많은 창조물이 가족으로서 생활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각 반이 자신들의 퍼즐을 보여 줄 때, 여러분은 노래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

초등학교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족의 사진을 퍼즐 조각처럼 자른다. 사진 뒷면에는 가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면서 퍼즐 조각을 택하고,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자신들의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한다.

3. 노래 발표: “주 살아 계시고”(어린이 노래책, 8쪽)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먼저 간증한다.

그런 후



네 명의 도우미에게 ‘살아 계시고’, ‘사랑한다는’, ‘성령’, ‘진리’, 등 각각 다른 종이에 적힌 단어를 들고 있게 한다. 도우미들이 특정한 순서 없이 방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단어들을 읽어 보게 한다. 어린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여러분이 1절을 부르는 동안 가사에 들어 있는 단어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 따라 부르도록 한다. 도우미들이 단어를 높이 들도록 하고 어린이들은 여러분과 함께 각 구절을 다시 부르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도우미들에게 앞에 나와 순서대로 어디에 서야 하는지 말해 주도록 하고, 1절을 다시 부른다. 2절의 ‘계획’, ‘왔다고’, ‘성령’, ‘말하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의 경우: 도우미들이 종이에 적힌 단어를 들고 있게 하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말할 단어를 정해 준다. ■

그들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박엽 형제 가족



4년 전, 두 명의 외국인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한 이들은 더듬더듬 한국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했다. 선교사들은 그 후 몇 번 더 우리를 찾았다. 한번은 발렌타인데이에 가족과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분홍색 하트 모양 종지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 쪽에 선교사들의 이름과 함께 쓰인 “We Love You”. 그 하트 장식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놀라고 고마워했는지 ...

선교사들의 방문을 좋아했지만 우리 가족은 당시 다른 교회에 다녔고, 교회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적지 않은 오해를 하기도 했다. 차라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 교회 모임에 가보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특히 감독님이란 이름으로 만난 한 분은 자주 찾는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평소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진료해 주시는 모습을 알기에 그분을 보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선교사와의 만남도 추억으로 막을 내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작년 2005년 초, 정확하게 3월 5일 밤 9시 30분 경이었다. “따르릉” 울리는 전화. 우리는 다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몰튼슨 장로님과 데니스 장로님이라는 분들이었다. 우리 가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은 날이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옮기고 싶어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교회란 어떤 곳일까 고민하던 때였다. 조셉 스미스처럼 그런 곳을 찾고자 갈망했다.

그때 선교사들이 오래된 구도자 기록부에서 우리 가족의 전화 번호를 찾은 것이다. 선교사를 만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고, 가족과 함께 복음 토론을 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듣는 회복된 복음은 4년 전과 너무 다른 느낌이었다. 난생 처음 듣는 전세와 영광의 왕국들,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 막연했던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네 번 정도 토론을 하고 3월 27일에 교회 모임에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오래된 이웃 같았던 몰튼슨 장로님과 데니스 장로님은 매일 밤 10시가 되면 우리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경전 구절을 읽어 주고 기도도 해 주었다. 아이들이 장로님들의 전화를 어찌나 기다리던지 ... 이렇게 특별한 선교사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 가족은 4월 16일에 함께 침례를 받았다.

복음은 메말라 가던 우리의 신앙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었다. 이 비는 주변까지 적시고 있다. 제일 먼저 체제가 다른 종교를 가진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용기를 내어 침례를 받았다. 종교에 관심이 없던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교회로 오시게 되었고 형님과 삼촌, 일본에 사는 동생까지 가족과 함께 각자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갖고 있다. 크고도 놀라운 계획으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아직도 우리 집 현관에는 분홍색 하트가 달려 있다. 영원

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 ■



2005년 4월 16일. 박엽 형제, 이종우 자매, 큰딸 박재현 자매, 막내딸 박재영 자매의 침례식. 박엽 형제와 이종우 자매는 발산 와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빛을 나누는 사람들

종교교육원

종교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민혜기(교육 기구 대표) 교육 기구가 있는 이유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이 모두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교육원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만 14~17세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세미나리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만 18~30세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독신 성인들과 기혼 대학생을 위해 주중에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종교교육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교 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청년 독신 성인뿐 아니라 결혼한 성인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회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민혜기 한국에서는 1972년 9월에 서울 시청 부근 남강빌딩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고 이호남 형제님과 당시 한국 선교부 브라운 회장님의 도움으로 열렸고 이호남, 서희철, 김차봉, 박병규, 도길회 형제

님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김종균, 최욱환, 김창선, 김종

“배우고 실천하라-지행 병진
(이순철)”

“하늘도 감동하여 하늘이 돕고
싶어 할 만큼 부지런히 일한다
(길정권)”

“일(수고)이 없다면 영감도 없다.
(임중하)”

“행복하기(being happy)보다는
복되기(being blessed)를
소망한다. (정태걸)”

“넓은 들을 바라보고 낱알을
심으라. (조용현)”

그 높이를 가능하자면 하늘까지,
넓이는 들녘이 끝나는 지평선까지.
광활한 시야로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품은 이들은 바로 한국
종교교육원 교사들이다. 그 열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렬 형제님도 초빙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교사들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임중하(광주) 저희가 일하는 주된 대상은 교회 젊은이들입니다. 수업 준비와 가르침, 통신 과정 관리, 출장 수업과 세미나리 교사 훈련과 관리, 접견, 학생회 관리, 그리고 수업을 등록하도록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요.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대부분 같은 대답이 나왔다.)

조봉재(부산) 영을 동반하는 것!

조만구(서울 서) 반원들이 스스로 경전에서 원리를 찾아 생활에 적용하고 간증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교수법이 있다면?

조용현(광주) 저만의 교수법은 없죠. 항상 예수님의 교수법을 흉내내려 합니다. 늘 반원과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원과 영이 만날 수 있게 돕는 걸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일(서울 동) 우선 경전을 많이 읽습니다. 산만하지 않게 다이어그램화하여 하나의 결론을 찾는 것. 늘 쉽지 않습니다.

길정권(서울 동) 감동이 있을 때 성장이 옵니다. 수업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 지치지 않는 열의, 반원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순철(부산) 활기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미리 좋은 질문을 만듭니다. 1시간 공과를 위해 10개 정도의 좋은 질문을 준비한다면 교사는 다소 여유있게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만구 반원들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경전 배경과 전후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서울 동 종교교육원 학생회 MT.

조용현 기도. 저는 그것을 'HOW를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수업 내용을 숙지한 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기도하면 수많은 놀라운 방법을 안내 받습니다.

정태걸(중부) 사실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보는 간판이나, 라디오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들, 리아호나와 경전의 수많은 사례들은 알면 알수록 더욱 풍성한 아이디어의 보고가 되지요. 교사 교재, 세미나리 교재, 주일학교 교재 등 교회의 모든 서적은 응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합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 시간은?

최채현(서울 서) 첫 수업이 항상 생각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지도 모른 채 강의만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준비는 무척 많이 했었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최채현 형제는 교사로 일한 지 3년째 되었다.)

임종하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착검한 군인들 사이를 지나 전남 여수로 출장 강의를 갔고, 수업 후엔 통행금지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야 첫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 왔는데 시내가 온통 혼란스러웠던 일들, 그 속에서 수업을 했던 일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순철 구약 수업에서 유월절 의식에 대해 가르칠 때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하여 반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교병 만들던 기억이 생생하고 기름에 구워서 그런지 구수하고 생각보다 맛이 좋아 놀랐던 게 기억납니다. 참여했던 반원들이 세월이 지난 뒤

에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온 몸으로 참여하는 실물 공과가 역시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린양을 구할 수 없었던 것과 실제 양의 피를 교실 문설주에 바르지 못한 것인데 그랬더라면 주님의 속죄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훈(서울 서) 10여 년 전 서울에서 공주로 출장을 다녔는데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을 때라 집으로 돌아올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마칠 때쯤 고속버스가 끊기는데 그럼 조치원까지 가야 기차를 탈 수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총알 택시를 타는데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타는 택시입니다. 두툼한 가방을 방패막이로 가슴에 안은 채 온 몸과 마음을 조리며 조치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곤 했는데 그래도 수업을 기다리는 20여 명 회원들의 반짝이는 눈을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태걸 저는 거의 모든 수업이 출장 수업인데 월 1회는 홍성 지방부에 방문합니다. 홍성 지방부 수업에는 대천, 대산, 당산 등지 회원들이 모두 모이기에 저녁 8시에나 수업을 시작하죠. 교회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지도자들이 종교교육원에 거는 기대는 실로 대단합니다. 홍성은 모든 지부 회장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신회원이거나 역원들을 동반하여 참석하십니다. 질문도 많고, 참여도가 높아 수업 후에도 질의응답이 많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습니다. 그 덕에 귀가 길에는 자정이 넘어 졸음과 싸워가며 운전해야 하는 행복한 시련에 처하기도 하지요.



작년 11월, 본부 부교육감 게리 무어 형제가 내한했을 때 한자리에 모인 종교교육원 교사들의 모습. 앞줄 왼쪽부터 서희철 형제,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민혜기 장로, 게리 무어 형제, 전임 교회 교육 기구 대표였던 박병규 형제, 전임 교사였던 도길희 형제. 뒷줄 왼쪽부터 정태걸 형제, 조용현 형제, 이재훈 형제, 조만구 형제, 최동일 형제, 임종하 형제, 이순철 형제, 길정권 형제, 조봉재 형제, 최채현 형제.

조봉재 바울의 선교 사업을 다루었던 신약2 과정 수업을 들었던 형제님이 선교 사업을 결심했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후에 전임 선교사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여러분과 수업에 힘을 주는 학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만구 경전을 읽어오는 학생,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최채현 자신의 간증을 기꺼이 나누는 학생입니다. 한 학생이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성신의 강한 영향력을 느끼게 되고, 수업도 힘을 얻게 됩니다.

종교교육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조봉재 오늘 성공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재훈 이 수업이 학생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

정태걸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수업이 부디 합당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기를 ...

임종하 지난 주 참석하지 못하여 연락한 학생이 오늘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서울 서 선교부 박준혁 장로



종교교육원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와(4년 전에 개종함)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발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때에 같은 와드 동생

이 종교교육원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거절했지만 다음 해에 길정권 형제님의 ‘복음 원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복음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수업에 다음 학기에는 모든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당시 제 직장은 야근이 많은 곳이어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일찍 업무를 끝내고 수많은 눈길을 피해 나오느라 혼줄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교육원이 아니었다면 선교 사업을 결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저를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어느 때보다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최정숙 자매

그때 어떻게 그럼 힘이 나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직장을 다닐 때 저는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오랫동안 속앓이를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 위가 약했는데 당시에 종교교육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서 걸어가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멀미가 나면 버스에서 내려서 찬 공기를 마시거나 토한 후에 다시 진정이 되면 버스를 갈아타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해야 수업이 있는 서울 서 종교교육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 때는 찬송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그 때는 토론을 준비하려고 경전을 읽는 것이 제 일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년 동안 수업을 들었고, 1993년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등록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성전 결혼과 종교교육원 명예 졸업이었습니다. 졸업할 때 뜻 밖에도 교육 기구 대표상을 받아 제 목표를 성취한 것에 대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그 해에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때 일들을 기억하면 더 영적인 힘을 키우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서울 등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김순애 자매



저는 결혼한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인 김건열 형제님을 만난 것은 작년 3월, 민혜기 형제님의 ‘교사 향상 훈련 과정’ 수업에서였습니다. 그 수업은 미리 임무 지명을 받은 반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저는 반주자로, 김 형제님은 반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영적인 수업을 위해 음악 발표도 했는데 그 일로 김 형제님과 주중에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는 열심히 수강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학기 수업을 마친 후 여름에 김 형제님과 데이트를 시작해서(문화의 밤 준비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해 9월 30일에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남편과 손을 맞잡고 종교교육원에 참석하리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약 수업을 함께 들으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저희는 계속 수업을 함께 들으며 서로 사랑을 강화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주님께게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성전 선교사 천낙서 장로, 천인덕 자매

19 68년 한국 선교부에서 검은 머리에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봉사했던 젊은 천낙서 장로가 고국을 떠난 지 30여 년만에 백색 의식복에 하얗게 센 머리를 하고 서울 성전 선교사 천낙서 장로로 돌아왔다.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이번에는 영원한 동반자인 천인덕 자매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두 번째 선교 사업,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한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천인덕 자매 저희 가족이 가족 인봉을 받으러 간 곳은 솔트레이크 성전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하얀 옷에 새하얀 머리를 한 할머니들이 나와서 저희를 맞아 주셨는데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저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에 성전에 계속 다니고 봉사도 하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부터 부쩍 제 몸이 안 좋아져서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선교사로 나갈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형제님이 작년 9월에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더니 선교 사업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낙서 장로 사실 선교 사업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미혼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선교 사업을 해야겠구나 ...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꿈도 이뤄 주고 싶었구요.

한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부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천인덕 자매 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꼭 한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했지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지만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오고 싶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30여 년 전에 여기 성전이 있는 신촌 지부에서 생활했는데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활동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멀어진 친구들인데 성전 봉사가 없는 날에 만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 여 되었는데 그 동안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천인덕 자매 복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하나로 묶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셋째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외지에서 혼자 출산한 딸이 많이 걱정 되었죠. 대신 여기에서 금식하고 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흩어져 사는 일곱 딸들이 오하려 더 잘 챙겨서 살더라고요.

천낙서 장로 처음엔 걱정이 되긴 했는데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교 사업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느라 바빠서 가족 걱정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매와 함께 지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어서 좋구요. 사실 선교 사업 나올 때는 가족의 축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더 좋은 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인데 선교 사업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헌납' 하는 것이죠. 헌납의 법은 하나님께 기쁘게 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토요일에 만난 보물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청년들의 상호 향상 모임 엿보기

“이거 딸기 양말이네. 예쁘다!”

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조용했던 온누리 노인 요양원이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천사”, “손자들”이라 불리는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청소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을 도우러 모였기 때문이다. 이 날은 2월에 졸업을 하는 큰언니 이예지, 정민희 자매와 이현지(고2), 이나래(중3), 이순지(중2), 이운지 자매(중1), 그리고 청남인 이태우(고3), 이영호(중3), 장세진 형제(중2)까지 아홉 명 일꾼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삼성 와드 청소년들은 매달 한 번씩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 시간에 이곳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네 번째 오는 거라 요양원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익숙하게 일을 시작한다. 목욕탕에 투입된 청년 회장 이경희 자매가 복지사들과 함께 할머니들을 씻기면, 문 밖에 대기한 청년들은 목욕을 마친 할머니 몸에서 재빨리 물기를 닦아 내고, 로션을 바른 후 새 옷을 갈아입힌다. 혼자 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할머니들을 부축하거나 들어서 침대로 옮기는 것도 아이들의 몫. 이 때는 유일한 장정인 태우가 가장 인기 많은 일꾼이 된다. 한편 영호와 세진이는 손톱깎이를 들고 할머니들 손톱, 발톱 손질에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이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만 내면서 깔끔하고 아프지 않게 손톱을 깎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민희는 침대로 돌아온 할머니에

정성스럽게 할머니 손톱을 깎는 장세진 형제

게 거듭 확인한다. “할머니, 손톱 깎으셨어요? 양말은요?” 할머니가 양말을 신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할머니 짐 속에서 양말을 고른다. “와! 이거 딸기 양말이네. 예쁘다! 신겨 드릴게요.” 활기찬 목소리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게 한다.

이 날 삼성 와드를 찾은 것은 이곳 청년들이 매주 재미있는 토요일 모임을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자세한 진상을 알기 위한 대화는 봉사 활동을 마치고 간 친 원짜리 자장면 집에서 이어졌다.

상호 향상 모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이들은 똑같이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떤 활동이 가장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민희가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죠.”하며 말을 꺼내자 아이들이 모두 “맞아, 맞아!” 한다. 작년엔 문화의 밤 준비로 부채춤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엔 소풍, 불링장 가기, 물풍선 싸움, 조셉 스미스 조사하기, 직업 탐방하기, 찜질방, 토피어리(풀인



요양원에서 나눠준 평퍼짐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들과 청남들.



목욕을 마친 할머니를 침실로 모시는 정민희 자매(왼쪽)와 이예지 자매(오른쪽).

형) 만들기, 모임에서 발표할 찬송가 연습하기, 성탄절 연극 연습 등을 하며 자신들만의 토요일 역사를 만들고 있다. 재미있는 모임의 특징을 꼽아보라고 했더니 모두들 “청녀들이 모두 모임 때가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재미있어요” “다같이 참여할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청소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와의 즐거운 추억을 아이들은 교회 모임에서 만들고 있었다. 어떤 역원이 좋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다시 똑같이 “친구 같은 사람”이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리 청녀 회장 자매님이 그래요.”

청녀 회장으로 봉사한 지 1년 정도 되었다는 이경희 자매는 훌륭한 청소년들 덕에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얘기한다. “모임을 계획할 때 1년 계획을 다 해요. 청녀들이 해야 할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과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가치관 활동을 정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계획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준비하는 모임을 좋아해요. 모임 준비는 각 반(월계반, 장미반, 꿀벌반)에 분배하는데 때로는 조금 서툴고 또 못할 때도 있지만, 우선 부탁하고 확인해서 안될 때는 회장단에서 도와 주고 ...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장면을 먹으면서 주고받는 아이들의 대화 주제는 참 다양하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청소년들. 친구와 웃고 몰려 다니는 지금, 그들의 세계가 역원들이 복음 원리에

따라 세운 질서 안에 있어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때쯤 교회와 복음에 대한 사랑이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아이들이 간증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 언제 가장 보람 있는지 묻자 이경희 자매가 대답하며 씩 웃어 보인다. ■



자장면 집 앞에서 찰칵. 뒷줄 왼쪽부터 청녀 회장 이경희 자매, 이현지 자매, 이순지 자매, 이태우 형제, 이영호 형제, 장세진 형제. 앞줄 왼쪽부터 정민희 자매, 이나래 자매, 이윤지 자매, 이예지 자매.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1. 보물 찾기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청남, 청녀 회장단과 부모님들께서 청소년들을 격려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문: 기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사진: 밝은 표정으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
기한: 3월 25일까지

2. 청년 대회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매해 여름 열리는 청년 대회에서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주변에서 그런 부부를 보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들이 직접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문: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간증
사진: 가족 사진 1장, 청년 대회 사진 1장
기한: 4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윤성조 형제, 택견인 선발 대회 1위

2005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전국 우수 택견인 선발 대회에서 제주 지방부 서귀포 지부 윤성조 형제가 일반부 1위를 수상하였다.

취미로 10년째 전통 무술인 택견을 배우고 있는 윤 형제는 현재 제주 지방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김정은 기자)

동계 청소년 대회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1월 6~7일 금산산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치렀다.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여덟 가지 습관'이란 제목의 세미나와 여러 실내외 활동으로 1박 2일을 보낸 청소년들은 작년 1월에 봉했던 타임캡슐을 열어 한 해 동안 자신의 발전 모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1년 뒤 대회를 기약하며 사명서를 적어 타임캡슐에 넣어 봉했다.(오경권 기자)



2006년 동계 청소년 대회 중인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들.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1월 5~7일에 강원도 태백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30여 명 참가자들은 용연 동굴, 낙동강 발원지 황지 연못, 석탄 박물관 등 태백시 곳곳을 관광했고, 해발 1,567m 태백산 등반에 나섰다. 매서운 겨울 산 추위 속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경전 퀴즈 대회와 노변의 모임 등을 통해 영적인 건강도 강화했다.(최미경 기자)



태백산 정상에 선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들.

바로잡습니다

지난 1월호 18쪽 "신앙을 위해 싸움"의 첫째 문단 일곱 번째 줄, (1907~1998)을 (1807~1898)로, 또한 34쪽 "신회의 본질"의 둘째 칼럼 밑에서 셋째 줄, 기원 전 325년을 서기 325년으로 바로잡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3명



김용희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템플 스퀘어 선교부



이대웅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



김미향
마산 스테이크
거제 지부
템플 스퀘어 선교부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제3회 광주 스테이크 예술제 및 합창제
청녀 축제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녀 축제
- 전주 스테이크
대제사 부부 송년 모임
- 제주 지방부
기혼자 대회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감독: 우성춘(전임: 남상덕)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감독: 조현석(전임: 조상우)
원당 와드 감독: 양성일(전임: 황창주)